메트로 2014년 2월 13일 목요일 제2913호 www.metroseoul.co.kr

창업하려면 1000명 'OK' 받아라

쉽게 뛰어들고 쉽게 망하는 창업시장 장년층 '예습' 열기
전문가 조언 듣고 투자 유치 가능한 기업 포럼 '문전성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은퇴 시기는 빨라지면서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1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2년 신설 법인 수는 6만5110개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에 등록된 50대 자영업자는 178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는 5만6000명 감소했지만 베이비붐 세대에서만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3년 이내에 사업을 접는 아픔을 겪는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김진수 교수는 "장년층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선불리 창업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가시적인 상품까지 들고 시장 검증을 받으며 비즈니스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년층의 창업 열기는 지난 11일 오후 SK텔레콤에서 개최한 장년층 창업 활성화 포럼 '브라보! 데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화 선수의 소치올림픽 경기가 한창인 시간이었지만 SKT 본사는 100명이 넘는 예비 창업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참석한 창업 전문가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 아이템을 검증받아라"고 입을 모았다.

벤처캐피털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 대표는 "투자자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예비 창업자를 선호한다"면서 "다양한 창업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식견을 높이고 전문가 인맥을 쌓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창업 교육에 참가하고

< 창업 7계명 >

-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검증받아라.
- 창업 학교, 창업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 첫 아이템으로 투자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마라.
- 투자는 받은만큼 갚아야 하는 점을 기억하라.
- 특허, 수상 실적, 투자 유치에 낙관하지 마라.
- 대기업 출신이라면 '슈퍼 갑' 인식 버려라.
- 가족 동의가 먼저. 가족 응원은 큰 힘이 된다.

창업 모임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 조언을 얻고 동업자를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개를 통해 투자금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등이 중장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과 창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기업의 경우 SKT는 장년층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브라보!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CJ푸드빌은 '상생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외식 창업 노하우를 교육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창업준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피드백을 거친 사업계획서는 창업자금 조달도 수월하게 만든다. 정부의 창업지원금 유치뿐 아니라 벤처캐피털의 깐깐한 투자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SKT 브라보 리스타트 1기로 창업을 시작한 강경흠(53)씨는 "창업 교육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같은 고민을 지닌 사람들과 교류하며 배우니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은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슐츠도 수백 명의 투자자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사업 아이템에 대해 1000명의 피드백을 받을 각오로 창업 준비를 하라"면서 "창업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공간에 최대한 참석하라"고 조언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이규혁 아름다운 '마지막 레이스'…모태범 노메달

'한국 빙속 맏형' 이규혁(36)이 12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경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역주하고 있다.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 최선을 다한 그는 1분10초049의 기록으로 메달권에서는 벗어났지만, 경기 후 링크를 돌며 한국 응원단이 보일 때마다 손을 흔드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함께 경기한 모태범은 12위에 머물러 500m에 이어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관련기사 22면> /연합뉴스

"위안부, 형언할 수 없는 잘못…日 정부 해결해야"

방한 무라야마 전 총리 국회 강연…"과거 반성 있어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형언할수 없는 잘못"이라며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초청으로 11일 한국을 방문한 무라야마 전 총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 주제 강연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선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 후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 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라면서 "무라야마 담화 발표 이후 이어진 '98년 한일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참석했다.

/조현정기자 jhj@

7년 만의 만남…北의 '중대 제안' 뭘까

남북 판문점서 고위급 회담…사전에 의제 정하지 않고 밤 9시 45분까지 접촉

"반갑습니다" 1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김규현(오른쪽)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남북은 12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앞서 서로 주장을 얘기하고 들어주며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북측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이날 접촉에서 남북 대표단은 오전 10시5분~11시23분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고, 오후 2시5분부터 2시간 동안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정회에 들어갔다.

그동안 남북회담은 첫 전체회의에서 미리 합의된 의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한 다음 수석대표간 접촉을 통해 개별 사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양상이었지만, 이번 접촉은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시작해 수석대표간 대화 대신 오후 늦게까지 두 차례 전체회의를 계속하면서 양측이 서로 관심사를 제기하고 설명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진지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됐다. 상호 관심사에 대해 남북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 없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경청했다"며 "어떤 분야에 대한 타결을 목표로 조율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접촉 분위기를 전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이날 밤 9시45분까지 2차 실무접촉을 펼쳤고, 공동보도문 없이 회담을 종료했다.

다만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의 원활한 진행과 상봉행사 정례화 등을 주요한 의제로 제기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직접 설명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취소 등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또 하나의 약속'을 보고 싶다

기자 수첩

탁 진 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영화계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배급사 OAL이 개봉 즈음 적은 상영관 수를 배정받자 외압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불거진 이번 논란은 상영관 수가 늘어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같은 날 개봉했으나 실시간 예매율이나 좌석 점유율이 '또 하나의 약속'보다 낮은 외화 '프랑켄슈타인: 불멸의 영웅'과 비교해 여전히 절반도 되지 않는 상영관 수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압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된 바 없지만 영화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고 관객의 수요가 있는데도 상영관 수가 적게 배정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게 영화계의 중론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대 권력으로 자리 잡은 삼성에서 일한 반도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애환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에 대해 외압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멀티플렉스의 광고주 눈치 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관객들은 다음 아고라에 상영관 수 확대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관람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사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이 개봉할 때마다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그런데 논란이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떠나 관객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제대로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자유시장 경제 논리와도 맞지 않아 보인다. 좋은 영화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사라질까봐 안타깝다.

12일 오전 동남극 테라노바만에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의 준공식'이 열렸다. 사진은 상공에서 바라본 장보고과학기지 전경. /연합뉴스

남극에 두 번째 '태극기'…장보고 기지 준공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가 착공 1년9개월 만에 준공됐다.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준공된 지 26년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설 기지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동남극 테라노바만의 장보고기지 영내에서 장보고기지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동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 건설한 건설 관계자를 치하하고 제1차 월동연구대의 선전을 기원했다.

총 10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된 장보고과학기지는 연면적 4458㎡에 생활동과 연구동, 발전동 등 건물 16개 동과 24개 관측장비에 부대설비를 갖추고 있고 최대 6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특히 영하 40도의 기온과 초속 65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앞으로 남극 킹조지섬에 있는 세종기지에서는 해양 환경과 연안 생태 등을 연구하고 장보고기지에서는 빙하와 운석, 오존층과 극한지 공학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남경필 "경기지사 아닌 원내대표 출마 준비"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12일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5월 실시되는 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지방선거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며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이 어울릴지 고심했다.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경필(오른쪽)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열린 '시작된 미래' 출판기념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설 피해 강원·경북 특별교부세 지원키로

●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폭설 피해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고 폭설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산간·해안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이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과 특별재난 지역 지정 검토를 요구하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숙 후임에 '4선' 이주영

신임 해수부 장관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 새누리당 이주영(4선·마산·사진)의원을 내정했다. 지난 6일 윤진숙 전 장관이 전격 해임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이 내정자는 1996년 정계에 입문한 뒤 당시 한나라당 원내부총무와 제1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부의장, 경남 정무부지사, 정책위의장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공석 이후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키고 해

수부의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에 따라 공석 사태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며 "이 내정자는 국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이 넓고 실력과 덕망을 겸비한 중진 의원으로서 해수부 조직 안정에도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홍원 총리 제청을 받고 이 의원을 내정, 이른 시일 내 인사청문회의 자료 준비가 되는 대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지방공무원 1만3701명 선발

올해 새로 뽑는 지방공무원은 1만3701명으로 지난해보다 1556명이 늘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684명이 포함된 수치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자치단체 신규 공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1만2654명, 소방직 993명, 기능직 109명, 별정직 2명, 임기제 52명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9급 공채시험은 6월 21일, 7급 공채시험은 10월 11일이다. 서울시는 7·9급 공채시험을 모두 6월 28일 치를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암으로 숨진 가장과 7년 동거 '수상한 가족들'

거실에 두고 평소처럼 생활
아내·자녀들 시신에 인사도

약 7년간 남편의 시신을 집 안에 보관해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2일 남편이 숨진 뒤 시신을 집 안에 그대로 유기한 혐의로 조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약사인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수년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집 안 거실에 보관해왔고, 부검 결과 경찰은 남편이 2007년 초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짝 부패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7년간 보관된 시신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다"며 "조씨가 시신을 방부처리한 것 아닌지 의심은 가지만 부검 결과로는 방부 처리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본인이 부인하고 있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10~20대 자녀 3명, 시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가족들은 시신에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남편이 숨진 뒤에도 약국 영업을 계속해왔지만 집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현관에 두꺼운 커튼을 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발견한 뒤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며 "조씨와 친지 등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ydh@

"전재용 탈세 미필적 고의"

법원, 포탈세액 절반 기탁 고려 집행유예 선고…이창석도 집유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액은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재용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비 계산 액수에 대해 경우의 수를 따져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는 등 자신들의 행위로 양도세 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 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 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3억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기탁했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용씨와 이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2월14일은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애국국민운동대연합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초콜릿을 바닥에 던지고 있다. 이들은 "2월 14일은 일본에서 건너온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선고 받은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원 "ADHD 성인 현역 입대 불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성인의 경우 현역병 입영이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2일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김모(28)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캐나다 등에서 외국 생활을 해온 김씨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해오다 2006년 4월 성인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07년 4월에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이를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

김씨는 2012년 6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검사 결과 김씨는 주의유지 능력과 인내심이 저조해 군 복무 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민준기자

"이상화 덕분에…오늘은 공짜" '빙속 여제' 이상화의 올림픽 2연패를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이 12일 고객들에게 아이스링크와 스케이트화를 무료로 제공했다. 21일 '피겨여왕' 김연아가 금메달을 딸 경우에도 무료로 아이스링크를 개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잠잠했던 AI 다시 번지나…안성·영암 의심신고

지난 6일 의심신고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11일 전남 영암과 경기 안성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2일 경기도는 "전날 오전 안성시 미양면 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며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오늘 오전 7시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2만2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미양면 오리 농장은 7일 의심 증상이 확인돼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화성시 온석동 양계 농장의 방역대인 반경 3km를 벗어난 곳이다.

전남 영암군 영암읍의 종오리 농장에서도 11일 AI 의심신고가 들어와 위험 지역(3km) 내 오리 2만7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종오리 농장 역시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 덕진면 종오리 농장의 방역대 안에 있는 곳으로 그동안 이동제한 조치를 받았다.

방역 당국은 즉시 가축 방역관과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들 농장에서 나온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AI 최종 판정 여부는 2~3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준기자 mjkim@

서울대 재수강 A+ 금지

내년부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재수강 시 'A+(4.3)'를 못 받게 된다.

서울대는 2015학년부터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학점을 'A(4.0점)'로 제한하는 '학점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윤다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수요집회 찾은 만화가들 12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1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박재동 화백을 비롯한 한국만화 연합회 회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18명' 뒤로 가는 출산율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2026년엔 노인 비중 20% '초고령사회'

지난해 국내 출산율이 전년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12월치를 추산해 집계한 결과 2013년 출산율이 1.18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3만8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2012년보다 약 4만6600명(9.6%) 줄어든 수치다. 또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명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반면 노인 인구의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에 노령화가 겹치면서 노년 부양비 역시 2011년 15.6%에서 2017년 19.2%, 2020년 22.1%, 2040년 57.2%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에 대한 노년 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로 한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계산하고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담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5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세대 간 연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인구 정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도입, 야간·휴일 시간 연장 보육 서비스 제공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서울시 "제2의 '도가니' 막겠다"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 최대 법인 허가취소도

서울시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법인 허가 취소까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양원태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일명 '도가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장애인의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자적' 관점으로 변화시킨 것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13일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립장애인 행복플러스 센터 4층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오픈한다.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돼 센터 근무를 자원한 김예원 변호사를 비롯해 27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 지원단이 재능기부를 통해 힘을 보탠다.

아울러 각 구청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시는 피해가 확인되면 지금까지는 시설장 해임이 최대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법인 허가 취소까지 할 방침이다.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장애 시민 참여배심원의 견해를 듣고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 장애 시민 참여배심원은 10명 이내로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꾸린다. 7월엔 장애인 당사자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가 출범한다. /김민준기자

은사 가마에 태워…아주 특별한 졸업식 12일 충북 증평군 형석고등학교 심우관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조선시대 선비 복장으로 스승을 가마에 태워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전히 그립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5주기를 나흘 앞둔 12일 오전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김 추기경의 안식을 기원하는 추모미사가 열렸다. /뉴시스

'수능 성형' 여고생 뇌사

가족들, 의료 과실 주장

수능을 마친 여고생이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고 난 뒤 두 달째 뇌사 상태에 빠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성형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여고생 A(19)양의 부모가 강남구 신사동의 G성형외과 의료진 등 4명을 상대로 중앙지검에 낸 고소 사건을 지난달 7일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2월 9일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A양은 수술을 시작한 지 7시간 만에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진 채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수술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뇌사 상태다.

A양의 가족들은 "병원 내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 마취를 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며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가장 나쁜 교통법규 위반 국민들"교차로 꼬리물기"

'교차로 꼬리물기'를 일반 국민들은 가장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찰청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질 나쁜 교통법규 3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서 응답자 553명 중 276명이 꼬리물기를 꼽았다. 신호 위반(256표)과 끼어들기(211표)가 뒤를 이었다.

이에 경찰은 주요 교차로에 캠코더 설치를 늘려 교차로 꼬리물기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준기자 mjkim@

'리베이트' 오스템 임플란트 압수수색

"치과의사에 수십억 제공"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2일 치과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목적으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와 업체 대표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금천구 업체 본사 사무실 등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5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정확한 리베이트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최소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앞으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치과 기재업계 1위 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경로당 복지공동체로 탈바꿈

서울시 관악구는 관내 경로당을 99 행복나눔 충전소 복지 공동체로 탈바꿈했다고 12일 밝혔다.

99 행복나눔 충전소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자·목도리를 털실로 직접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어르신의 여가 활동 장소이자 쉼터로 활용되던 경로당을 복지 공동체로 확대했다.

성동구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서울시 성동구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된다.

구는 지난해 21개 사업에 1213명이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올해 25개 사업 1395명으로 확대하고, 예산 규모도 지난해 24억원에서 올해 29억원으로 늘렸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근무시간이 월 36시간으로 각 수요처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저소득 주민 맞춤형 복지 교육

서울시 강남구는 오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순회 교육 '행복한 권리 누리기'를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17일 오후 3시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릴 교육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의료급여 사업 안내 ▲보건소 지원사업 안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안내 등이 진행된다.

중국, 명품 대신 '황금 사재기'

고강도 시정 '약발' 안 먹혀

중국인의 '황금 사랑'은 시진핑(習近平·사진) 정부의 고강도 부패 척결 운동에도 식을 줄 모른다. 지난해 고가 제품이나 사치품 구매는 감소했지만 황금 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최근 중국황금협회는 지난해 중국 내 황금 소비량이 1176t으로 전년보다 41.3% 증가했다고 밝혔다. 황금 소비량이 사상 처음 1000t을 넘어선 것이다.

중국에서 황금 소비량은 2008년 350t, 2009년 454t, 2010년 571t, 2011년 761t, 2012년 832t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며 2010년 이후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소비량 가운데 금괴 제작용은 376t, 금 장식 제작용은 717t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베이징황금경제발전연구센터의 친웨이헝 연구원은 "지난해 황금 소비량이 급증한 것은 국제 금값이 하락한 것과 연관이 있다"면서 "금값이 큰 폭으로 내리자 시민들이 금 사재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제 금값은 연간 28% 떨어졌다. 12년 동안 이어지던 금값 상승 행진이 멈춘 것이다. /조선미기자

케네디 대사 오키나와 방문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일본 오키나와현 이토만시의 평화기념공원을 방문, 전몰자 묘지 앞에 헌화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오바마 부부 '극진한 환대'받는 올랑드 미국을 방문 중인 프랑수아 올랑드(가운데) 프랑스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만찬장에 도착,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의 환대를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日 젊은층 "사과 질렸다"

WSJ "과거사 반성보다 강한 일본 주장에 열광"… 서점가선 혐한서적 불티

일본 정부가 '우향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의 우경화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에 싫증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내셔널리스트(국가주의자)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의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일본 젊은 세대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9일 치러진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도 젊은 세대의 우경화가 나타났다. 극우 성향의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격)은 12%의 득표로 전체 4위였지만 20대 지지율은 24%에 달했다.

다모가미는 일본의 전후 교육이 '자학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모국에 긍지와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아키야마 노부마사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WSJ에 "일본의 내셔널리스트들은 일본이 '멋진 패자'로 대접받는 데 싫증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우경화는 과거의 만행에 대해 충분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고, 미국도 주변국을 적대시하는 일본 정부의 대응 방식에 놀라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일본 서점가에서는 한국을 비판하고 야유하는 혐한 서적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올 들어 신간 논픽션 부문 주간 베스트셀러 10권 중 '어리석은 한국론'이라는 뜻의 '매한론'과 '모일론', '거짓말투성이 일·한 근현대사' 등 3권이 혐한 서적이었다. 지난해 이맘때는 혐한 서적이 주간 베스트셀러 '톱 10'에 한 권도 없었다.

특히 매한론은 혐한 논객의 대표주자 격인 저널리스트 무로타니 가쓰미가 '악한론'의 후속편으로 내놓은 책이다. 이 책은 발매된 지 2개월여 만에 20만 부 넘게 팔렸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앞유리에 사람 매단채 30㎞ 질주

metro HongKong

고속도로서 시속 140㎞

중국에서 한 남성이 차 유리에 매달려 30㎞를 달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구이저우성 안순시의 후쿤 고속도로(상하이와 쿤밍을 잇는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구이양시에서 안순시 방향으로 달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앞 유리에 사람이 매달려 있던 것.

경찰은 즉시 이 차량을 쫓아가 경적을 울리며 운전자에게 차를 멈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 차량은 계속해서 앞으로 질주했다. 경찰은 시속 140㎞로 경찰차를 운전해 겨우 SUV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루(陸)씨와 차에 매달린 천(陳)씨는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무모한 질주'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씨는 "고속도로에서 140㎞ 속도로 30㎞를 달려왔다"며 "경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결국 도로에 떨어졌을 것이다. 마침 경찰이 있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차에 매달려 온 사람은 처음 본다"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정리=조선미기자

소치는 '사이버 전쟁터' 해커들 정보유출 심각

2014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 소치가 '사이버 전쟁터'로 변했다.

컴퓨터 해커들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외교관과 기업가 등을 표적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올림픽 기간 중 소치를 찾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사이버 전쟁에 발을 담그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해킹을 우려해 선수단은 물론 소치를 찾는 자국민에게 컴퓨터와 IT 기기에 수록된 중요 정보를 모두 지우라고 권고했다.

또 백악관은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와 제프리 파얏트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간 통화 내용을 도청한 음성파일을 최근 유튜브에 공개한 배후로 러시아 정부를 지목하기도 했다. /조선미기자

세제혜택 끝나자마자 은행 주택대출 감소

지난해 말로 세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000억원 줄어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신규·미분양주택 구입자 양도세 5년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종료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은 설 상여금 지급으로 지난달 1조8000억원 줄어 가계대출 감소세를 이끌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월 말 현재 477조8000억원이다. 이 중 주택대출은 327조4000억원,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149조6000억원이다.

기업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2조7000억원 준 은행 기업대출(원화)은 올해 1월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김민지기자

세계증시 웃게 한 그녀의 첫 입김

"버냉키처럼 초저금리 유지"
옐런 연준의장 데뷔 발언에 뉴욕도 유럽도 증시 상승세
코스피에 '외인 훈풍' 예고

/로이터 연합뉴스

재닛 옐런 신임 연준 의장의 첫 데뷔 발언에 글로벌 증시와 국제 금값이 날개를 달았다.

옐런 의장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금리 인상 불안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는 1% 넘게 오르고, 유럽 증시는 1~2%대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도 미국발 훈풍에 6거래일째 올라 1930선을 유지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6.6%까지 하락하면서 연준이 제로금리 유지를 약속한 목표치 6.5%에 근접하자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을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옐런 의장은 실업률이 향후 수개월 안에 6.5%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연준의 정책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률이 하락하면 자동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란 우려를 덜어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옐런 의장의 연준 정책 기조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준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위축된 투자심리가 개선돼 세계 증시의 안도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내 주식시장도 외국인의 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금값 역시 상승 탄력을 받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은 전날보다 1.2% 상승한 온스당 1289.80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마감 기준으로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번주 들어서만 금값은 2.58%나 올랐으며 월간으로는 3.89% 뛰었다.

향후 관심사는 1300달러 재돌파 여부다. IBK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은 "올해 금값 상승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금 수요국인 인도의 수요 증가 전망과 중국의 '춘절' 호재도 금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김현정기자 minji@metroseoul.co.kr

주유소 폐업 급증 작년말 기준 393곳

한때 '황금알 낳는 거위'로 불렸던 주유소들의 폐업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12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택한 주유소가 310곳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내 폐업 주유소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37곳), 강원(36곳), 경북(34곳)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휴업한 주유소도 393곳에 달했다. 휴업은 폐업 자금조차 없어 사업을 접지 못하는 주유소가 임시방편으로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정유업체들도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영업이익이 2조9594억원으로 영업이익률 4.3%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3818억원(이하 이익률 2.1%)으로 쪼그라들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각각 영업이익 9001억원(2.0%)과 3992억원(1.3%)으로 적자나 간신히 면할 정도의 마진을 손에 쥐었다. /이국명기자 kmlee@

앙골라에 '112' 수출 KT는 우리나라 경찰청 치안 시스템인 '112 시스템'을 아프리카 앙골라에 수출했다고 12일 밝혔다. 112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범죄신고 처리에 접목한 시스템이다. /KT 제공

기업 86%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상승"

3년치 소급분 소송 관련 62% "가능성 낮다" 응답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다수 기업의 인건비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상당수 기업은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인건비 증가폭을 살펴보면 '2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기업이 17.3%, '15~20%'가 11.3%, '10~15%'가 12.7% 등 전체 응답 기업 중 41.3%가 인건비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5~10%' '5% 미만'이라는 응답은 각각 22.4%를 차지했고,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13.9%로 집계됐다.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소송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송 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62.0%, '노사 간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란 응답이 20.7%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응답 기업의 8.1%가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고 답했고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도 9.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의 축소, 변동급 확대 등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겠다는 뜻이다.

/김태균기자 ksgit@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1935.84 (+3.78)

코스닥 520.64 (+1.74)

금리(국고채 3년) 2.84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61.20 (-5.30)

뉴스&뉴스

올리브영, 남성화장품 50% 할인

CJ올리브영은 오는 14일까지 밸런타인데이 로맨틱 룩 & 달콤 기프트를 위한 브랜드 기프트 전 행사를 열고 남성 화장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또 스킨·헤어케어 제품 및 남성 기프트 구매 시 일부 제품에 한해 구매 금액별 정품 기프트도 증정한다. /CJ올리브영 제공

한화-협력사 동반성장 협약

●한화(대표 심경섭)는 12일 오전 태평로 소재 '더 플라자'에서 경인 지역 20여 개 협력회사 대표와 '2014년 한화-협력회사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한화는 협력회사 임직원이 한화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내 관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협력회사 임직원의 휴가비용 부담 감소와 함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했다. /김태균기자

넥센타이어 또 '주총 1호'

●넥센타이어가 12월 결산법인 상장회사 중에서 주총을 가장 빨리 개최하는 '주총 1호' 기록을 올해로 15년째 이어갔다. 넥센타이어는 12일 제56기 정기주총을 열어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에 대한 보고 및 이사·감사 재선임을 의결했다. 회사 측은 "최초 주총을 통해 투명경영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 경영 방침을 확인하고 주주들에게 경영 성과를 빠르게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연금복권520 제137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4조	920207
		6조	392279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308162
4등	100만원	각조	21556
5등	2만원	각조	929
6등	2000원	각조	92, 31
7등	1000원	각조	3, 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반도체는 신기해"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14'에서 한 관계자가 반도체 비전검사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은, 대우증권 빼고 다 판다

KDB·캐피탈·자산운용·생명 등 금융계열사 매각

산업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금융 계열사들 중 KDB대우증권을 제외한 모든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및 KDB생명 등을 매각 대상으로 분류하고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미 산은은 KDB생명을 매각하기로 하고 주간사 선정을 위해 외국계 증권사와 대형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입찰제안서를 발송한 상황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정도에 매각 주간사가 선정될 예정이며 빠르면 상반기 내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반면 KDB증권은 당분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증권의 경우 시장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산은은 다른 금융사에 대한 매각 시기 및 방법 등은 시장 수요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각 대상 금융 계열사에 대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경영 관리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은은 금융 계열사들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신수익원 발굴, 부실 여신 정리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산은은 금융사 이외의 투자회사인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주주권 등을 활용, 경쟁력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재무구조가 취약한 동부그룹·현대그룹·한진그룹의 자산 매각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올해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부실 여신을 막고 대손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원기자 pjw89@metroseoul.co.kr

고액보험 편법증여 '제동'

가입자 명의 변경할 경우 앞으로 국세청 신고해야

고액 보험 상품을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명의를 변경할 경우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명의를 변경할 시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한 뒤 자녀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는 과세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신고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에서도 가능하다. 기간은 명의 변경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신고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미제출 금액이나 누락 금액, 불분명한 금액이 있을 경우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다만 제출 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000분의 1로 가산세를 경감한다. 가산세는 증여에 따른 산출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징수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 상품이 진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상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다"며 "보험 명의 변경 신고는 이처럼 금융 상품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오곡밥 나눠주는 '농협 정월대보름 장터' 12일 오전 서울 강동구 농협서울지역본부 주차장에 개장한 정월 대보름 직거래장터에서 이상욱(왼쪽 셋째) 농업경제대표이사가 장을 보는 시민들에게 오곡밥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사 CEO들 확약서 제출…14일 TM 재개

텔레마케팅 재개와 관련,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해당 정보 합법성에 대한 CEO 확약서를 모두 제출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모두 TM영업 재개를 위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보험사들의 TM업무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CEO 확약서를 받아 기존 보유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도록 했다.

제출 기한은 7일이었으나, 보험사들이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물리적 한계를 감안해 제출 기한을 11일로 연장했다.

보험사들은 전체 계약자 리스트를 비롯 전산상 고객의 동의 여부, 실제 고객 동의 여부가 확실한 대상자 등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확약서에는 CEO가 정보 수집, 이용 절차를 확약하는 형태로 작성,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영업 재개는 14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매주 고객 동의 여부를 추가 확인해 당국에 영업 대상 명단을 내야 한다. /박정원기자

'학자금 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저축은행 심사 허술 악용 대학생 수십명 상대 범죄

대학생 A씨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맡기면 장학금을 주고 원리금까지 보장된다는 말에 자신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사기범에게 넘겼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A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사기를 당한 대학생은 40여 명, 피해 금액만 약 6억원에 달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처럼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경험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다. 또 이들은 저축은행 등에서는 소액 신용대출 심사가 허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여기에 경기 불황과 취업난이 겹쳐 어려운 경제 여건에 처한 대학생들은 금융사기범들의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사기범들의 주요 사기 유형은 장학금 및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받아낸 뒤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고 달아나는 것이다. 또한 다단계 업체들은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직접 대출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있지도 않은 증권선물투자회사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직 광고를 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증권선물계좌를 개설하게 한 사례도 있다.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한 뒤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계좌로 입금한 대출금은 그대로 사기 업체가 가로채갔다.

금감원은 연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을 받으라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은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을 미끼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대출을 강요하는 경우도 각별히 유의하고 고소득 약속에 현혹되지 않고 불필요한 대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을 때는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철기자

위례 '블록명 숫자' 희비

아파트 위치따라 송파1·성남2·하남3 표기… 이젠 프리미엄 순위로

"아파트 블록명에 붙은 숫자만 보면 행정구역이 나와요. 1은 송파, 2는 성남, 3은 하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분양권 프리미엄도 1은 가장 높은 4000만~5000만원, 2는 그보다 낮은 2000만~3000만원, 3은 1000만원 이하로 나뉘고 있습니다."(위례신도시 인근 H부동산 관계자)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 입지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나뉘고 있다. '위례'라면 모두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수천만원의 웃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하는 단지가 있는 반면, 50% 이하의 저조한 계약률 탓에 속앓이를 하는 아파트도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송파권역 내 위치한 단지들이 찾는 사람도 많고, 프리미엄도 높다. 특히 작년 하반기 중심상업지인 트랜짓몰 안에 공급된 ▲힐스테이트(C1-1블록) ▲아이파크1차(C1-3블록) ▲아이파크2차(C1-2블록) ▲더샵(C1-4블록) 등은 웃돈이 50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하지만 송파를 벗어나 성남과 하남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위례에서 유일하게 순위 내 마감에 실패한 '부영 사랑으로'(A2-10블록)가 성남에, 아직 미분양 상태인 '센트럴 푸르지오'(A2-9블록)와 '그린파크 푸르지오'(A3-9블록)는 각각 성남과 하남에 속해있다.

또 지금은 계약이 마감됐지만 작년 5월 분양 당시 3순위에서 1.63대 1을 기록하며 초기 저조한 계약률을 보였던 '엠코타운 플로리체'(A3-7블록)도 하남에 위치했다. 청약 성적이 이렇다 보니 웃돈도 비교적 낮게 형성된 상태다.

계약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부영 사랑으로'의 경우 프리미엄 자체가 없고, '그린파크 푸르지오'는 골프장 조망권을 갖춘 세대에 한해 2000만원가량의 웃돈이 붙어있다. '엠코타운 플로리체'도 2000만~3000만원이면 거래가 가능하다.

물론 삼성물산이 A2-5블록에서 선보인 '래미안 위례'처럼 성남에 위치했어도 물건이 없어 거래가 안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단지도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공원과 하천 조망이 가능한 데다, '래미안'이라는 브랜드가 높은 프리미엄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는 "래미안 위례가 특이한 케이스이고, 위례에서는 1순위는 송파, 2순위는 성남, 3순위는 하남"이라며 "모든 교통·편의시설이 송파로 연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학교 통학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향후 성남이나 하남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송파를 특히 선호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효성의 국내 최초 택시용 CNG충전소인 '상록에너지'에서 운전자가 CNG를 충전하고 있다. /효성 제공

'CNG택시' 시동 건 효성 충전소

안산에 국내 최초 시설 등 한발 앞서 관련 사업 확대

정부가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 택시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효성이 국내 최초로 택시용 CNG충전소를 완공하는 등 CNG 충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효성은 최근 경기도 안산의 택시회사인 상록운수에 택시 전용 CNG 충전 시스템을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한 CNG 충전 시스템은 350마력급 압축기 1기와 택시 전용 충전기 4기로 구성됐다. 특히 속도 제어가 가능해 4대의 택시를 동시에 충전해도 부하가 걸리지 않아 전력 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LPG충전소와 달리 택시회사 내 유휴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CNG는 연소 시 대기오염 배출물질이 기존 연료 대비 현저히 적은 친환경 연료일 뿐 아니라 연비가 ℓ당 평균 10.2km로 LPG(6km)에 비해 40% 우수하다. 연료비도 ℓ당 1036원 수준으로 LPG(ℓ당 1065원 내외)보다 저렴하다. CNG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며 추가적인 연료 가격 인하도 예상된다.

또 CNG 압축용기용 소재 공급 기반이 확대된 점도 시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CNG 압축용기나 수소에너지 용기는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탄소섬유로 감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그간 탄소섬유는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효성이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에 탄소섬유 생산설비를 준공했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올해를 기점으로 CNG 택시 전환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태균기자 ksgit@

현대백화점 '초콜릿 받는 허그' 이벤트 현대백화점은 오는 14일까지 밸런타인데이 기념 '러브&허그(LOVE&HUG) 이벤트'를 벌인다. 이 행사는 준비돼 있는 초콜릿색 마네킹을 껴안으면 심장박동 수가 화면에 나타나고, 일정 심장박동 수에 도달하면 초콜릿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현대백화점 제공

작년 한국車 635억달러 흑자 '역대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역대 최고인 63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해 자동차 산업은 수출 747억 달러, 수입 11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인 63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입차 시장 확대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 레저용 차(RV) 승용차 수출 비중 증가와 함께 국산차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높아진 위상 등으로 사상 최대치 수출 실적인 747억 달러를 기록했다.

1월 완성차는 전년 동월 대비 영업일 수 감소(2일) 등으로 생산과 수출은 각각 -10.3%, -9.9% 감소한 반면 내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국내 판매가 영업일 수 감소에도 소비심리 개선과 신차 효과 등으로 지난 8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향후 현대 쏘나타(LF)·기아 카니발(YP)·르노삼성 QM3 등 주력 모델의 신차 출시가 예정됐고, RV 차량의 수요 확대 추세와 함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유주영기자 boa@

1월 취업자 수 12년만에 최대폭 증가

전년 동월비 70만5000명 늘어… 임금근로자 3.8% 증가

시간선택제·여성 고용 정책에 훈풍이 불면서 1월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475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2002년 3월(84만2000명) 이후 12년 만에 최대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7만4000명이나 증가했다. 이 또한 2002년 2월(9만5000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65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2만2000명(-1.9%) 줄었다. 이는 실업자 집계 시 구직 활동 기준을 1주에서 4주로 바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가사(-20만6000명, -3.2%)와 쉬었음(-15만4000명, -8.4%), 재학·수강 등(-7만2000명, -1.7%)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고용의 질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근로자가 182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7만5000명(3.8%) 늘었다. 상용근로자가 66만 명(5.8%), 일용근로자가 5만 명(3.4%) 늘어난 것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3만5000명(-0.7%)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늘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유지된 것이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며 "여성 고용 확대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정책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폰 보조금 폭탄 안멈추는 이유 '5:3:2'

10년 불변인 SKT·KT·LG유플 등 이통3사 점유비율 "지키자" "깨자" 경쟁

최근 10년간 변하지 않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대3대2'라는 시장점유율 변화가 가능할까.

최근 SK텔레콤과 KT는 시장점유율 50%와 30%를 지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20%라는 시장점유율을 넘어서는 변화를 위해 보조금 전쟁에 나서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8~11일까지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무시한 채 경쟁사 가입자를 뺏기 위한 보조금 폭탄을 쏟아냈다.

SK텔레콤은 11일과 12일 잇따라 "지난 주말 LG유플러스가 '성장률 5%'라는 무리한 영업 목표를 내걸고 보조금 폭탄을 퍼부었다"며 "사실상 '무한 보조금' 과열 주도를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달 4만500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해야 한다며 이처럼 무리한 목표를 앞세워 심지어 신용불량자까지 가입 대상으로 하는 등의 지나친 영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연이은 SK텔레콤의 주장에 팽팽히 맞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오히려 SK텔레콤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박인식 총괄사장이 직접 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점유율 50%를 사수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대규모 보조금 투입을 통해 단기간 내 실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며 "이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로 투자자 불안감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 50%가 붕괴될 경우 불안감이 더욱 증폭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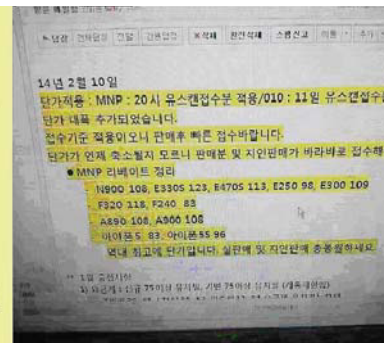
◆방통위 '영업정지 3개월' 카드

지나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갈수록 혼탁해져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방통위도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에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제재 안건은 방통위가 처벌 방침을 의결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처벌을 건의하면 미래부가 이를 검토해 처벌을 집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발생한 '2·11 대란'과 관련, 추가적인 제재도 이뤄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 불이행 조치안의 경우 이통 3사가 모두 영업정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2·11 대란에 대한 과열 경쟁 상황도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주도 사업자를 선별, 추가 영업정지를 부과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익일 순증 1만개 목표 필달!>

금일 저녁시간대 본부장님지시로 대대적인 정책보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내일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부.총판매 4만개.순증 1만개- 영업단.총판매 7천개.순증 1.8천개내일 숫자는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시기때문에 전조직의 역량을 모아 필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소매대리점씨엠은 내일 전쟁시작을 담당 대리점에바로 전파하시고 대리점직원전원출근 시키기 바랍니다.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보낸 문자메세지(왼쪽)와 SK텔레콤이 대리점에 보낸 e메일 정책 공지 내용(오른쪽).

롯데마트 "4개국 갑각류 대표 모여!" 12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한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4개국 대표 갑각류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9일까지 전국 모든 지점에서 국산 홍게(1마리 350g 내외)는 5600원, 미국산 랍스터(450g 내외)는 1만4400원에 판매한다(단 신한·KB국민·현대카드 사용 조건). /롯데마트 제공

예고 없는 암·간병 힘든 치매 '보험이 효자'

AIG 노년대비 상품 눈길

'병원비 무서워 병원 못 간다'는 말이 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 얘기다. 나이가 들수록 이곳저곳 다쳐 병원 갈 일이 많은 노년엔 병원비가 두려워 차일피일 병원 가기를 미루기 일쑤다. 하지만 자칫 병원 가기를 미루다 더 큰 돈을 지출하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

노년의 의료비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96만원으로 2004년 대비 2배 증가했고, 노인 진료비 총액으로는 3배가량 늘어났다. 또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인 94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노년에 드는 만만찮은 의료비용은 경제활동이 없는 노년층에게 더욱 부담일 수밖에 없다.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3대 큰 병 대비는 필수다. 'AIG부모님암보험'은 암은 물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각각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보장한다.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를 노년, AIG부모님암보험으로 미리미리 대비해 노년 병원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자. 더 큰 지출을 막을 수 있어 노년 재테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암 같은 큰 병뿐 아니라 노년에 가장 걱정되는 치매는 치매 간병비부터 따져봐야 한다. 오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전 가족을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빠지게 한다. 결국 치매 대비는 치매 간병비 대비인 셈이다. 'AIG치매보험'은 치매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보장해줘 실질적인 치매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도 보장된다. 상품 내용 및 가입 문의: 080)432-0170 /박정원기자 pjw89@

K900, 벤츠 E클래스와 '가격 동급'

기본 5만9500달러에 올연말 본격 미국 시판

기아차의 플래그십 모델인 K900(사진)의 미국 판매 가격이 공개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K900은 미국에서 V8 모델이 5만9500달러의 기본 가격으로 판매되며 올해 연말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 이 가격에는 미국 내 운송료 900달러가 포함돼 있다.

V8 5.0ℓ 엔진을 얹은 이 모델은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와 전동식 트렁크, 19인치 휠이 기본 장착된다. 또한 나파 가죽 시트와 월넛 우드 트림, 히팅 스티어링 휠, 열선·통풍 시트, 17 스피커의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6000달러 가격의 VIP 패키지는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16방향 전동 조절 운전석, 전동 조절 뒷좌석, 서라운드 뷰 모니터,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된다.

V8 모델의 최고 출력은 420마력이고 8단 자동변속기와 궁합을 맞춘다. 이 모델이 데뷔한 이후 좀 더 저렴한 가격의 V6 모델이 추가될 예정이다.

K900은 기아차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지닌 차다. 2003년 출시한 오피러스로 미국 고급차 시장을 공략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2010년부터는 수출이 중단돼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K7이 오피러스의 자리를 대체했다. 이후 2012년 5월에 K9이 선보이면서 오피러스의 뒤를 이을 플래그십 모델이 탄생하게 됐다. K9은 미국에서 K900이라는 이름으로 고급차 시장을 공략할 예정인데, 오피러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K900의 미국 판매 가격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등의 세단과 비슷한 가격이어서 이들과의 승부도 관심거리다.

/임의택기자 ferrari5@

대기업 이직 이유는 '연봉'

대기업 이직 희망 사유 1위는 높은 연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직장인 1549명을 대상으로 '가장 이직하고 싶은 대기업'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가 16.7%로 이직 희망 기업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자동차'(9.5%)와 '포스코'(8.8%)가 각각 2, 3위에 올랐으며 이어 'SK에너지'(3.7%), '대한항공'(2.7%), 'CJ제일제당'(2.6%)이 상위권에 들었다.

한편 이직 희망 대기업의 선택 조건으로는 '높은 연봉'(30.4%)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다음으로 '근무환경·조직 문화'(15.6%), '휴식·의료·육아시설 등 복리후생'(11.3%), '자기계발 등 커리어향상 지원'(8.1%), '회사 비전·성장 가능성'(7.4%), '정년 보장'(7.2%) 등이 답변됐다. /장윤희기자 unique@

전용기는 부자들의 전유물?

글로벌 이코노미

가격 급락에 찾는 사람들 늘어… 중고 비행기 2100만원짜리도 등장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비행기 가격이 하락, '하늘을 나는 애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전용기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중고 모델까지 매물로 쏟아지면서 전용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직까지 전용기는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다. 자동차 한 대 장만하듯 손쉽게 살 수 없다. 하지만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나 중고 비행기를 잘 물색하면 머지않아 전용기를 타고 상공을 가르는 날이 올지 모른다.

비즈니스 제트기 제조업체 '사스나사이테이션'의 7~10년 된 6인승 비행기 '파이퍼 사라토가'의 가격은 25만~45만 달러(약 2억6700만~4억8000만원)다. 30년 된 프로펠러 비행기도 관리가 잘된 경우 단거리 운항이 가능한데 가격은 2만~4만 달러(약 2100만~4200만원)다.

4인승 경비행기 '파이퍼 애로'. /BBC

또 이베이와 같은 경매 사이트를 통해 비행기를 구입할 수도 있다. 트레이드어플레인닷컴(Trade-A-Plane.com)이나 컨트롤러닷컴(Controller.com) 같은 중고 비행기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가격과 모델을 비교한 뒤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비행기를 직접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구입 시 모델의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말했다. 한 파일럿은 "특히 중고 비행기의 경우 잘못 구입하면 구입 가격보다 수리 비용이 더 든다"면서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정비 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행기는 구입 비용은 물론 연료비와 수리비, 관리비도 엄청나다. 미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중형 세단의 연간 유지비는 약 9000달러다. 반면 비행기는 창고 등에 보관하는 데만 중형기의 경우 한 달에 2000~6000달러, 소형기는 200~700달러가 든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올해 임금 조정률 2.3% 이내로 해야"

이희범 경총 회장 밝혀

이희범(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올해 적정임금조정률을 '2.3% 범위 내'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1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최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은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총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2014년 적정 임금 조정률을 '2.3% 범위 내'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 환경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60세 정년 의무화, 인위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과도한 임금 상승과 고용 경직을 초래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적정 임금 조정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해 산출된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에 근거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2016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의 대안으로 '임금피크제'를 꼽았다. 그는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법제화돼 산업현장의 혼선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막대한 기업부담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및 신규채용 여력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60세 정년 의무화 시대에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며 현재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 ksgit@

게임사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확 줄었다

카톡 등 플랫폼 수수료 탓

'재주는 게임사가, 재미는 카카오가?'

지난해 주요 게임사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실속 측면에서는 되레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게임 비중이 커지면서 볼륨도 덩달아 커졌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적지 않은 까닭으로 분석된다.

현재 게임 개발사는 구글이나 애플의 앱 장터에 매출의 30%, 카카오에 21%, 총 51%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영업·마케팅 등에 드는 비용까지 더할 경우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매출의 10~20%에 그친다.

12일 모바일게임 기업 컴투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반 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연간 매출액은 역대 최대인 814억원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2% 감소한 77억원에 그쳤다.

온라인·모바일게임을 제작하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모바일게임의 매출이 10배나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2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매출이 수직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큰 재미는 보지 못한 셈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제공사에서 매출의 절반을 가져가는 기형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게임사 전용 독립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기존 플랫폼의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기자 zen@

인기 유아 프로그램 '두다다쿵' VOD 보세요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G'와 모바일 IPTV 'U+HDTV'를 통해 EBS 최신 인기 유아 프로그램 '두다다쿵' 주문형비디오(VOD)를 독점 제공한다. /LG유플러스 제공

"美 증시 이달말 대폭락 할수도"

"대공황 직전과 비슷" 경고

이르면 이달 말 뉴욕 증시가 대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뉴욕 증시의 지난 2개월 차트 움직임이 1928~29년의 증시 대폭락 직전과 매우 흡사하다는 주장이다.

마켓워치는 비관론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맥클레런 마켓 리포트를 작성하는 톰 맥클레런은 "이런 동조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시장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며 "1929년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맥클레런에 따르면 1930년대 다우지수 변동 추이 곡선과 지난해 다우지수 변동 추이 곡선의 패턴이 거의 일치한다. 이들 지수의 변동 추이를 그래프상에서 곡선으로 나타낼 경우 이들 곡선의 상관관계는 더욱 명확해진다는 설명이다.

드마크 애널리스틱스 창업자인 톰 드마크도 "뉴욕 증시의 이런 위험한 상관관계를 도출했다"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가 1762를 밑돌면 심각한 하락장이 막 시작되는 전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브리즈 파트너스의 더그 카스 매니저는 "증시 상황이 1928~29년과 흡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 역사가 반드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니지만 뉴욕 증시 움직임에 일정한 운율이 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쉐보레 레이싱팀 안재모 영입

한국GM의 쉐보레 레이싱 팀이 배우 겸 카레이서 안재모(사진) 선수를 새로 영입하고, 더욱 강력하게 튜닝한 쉐보레 크루즈 레이스카로 올 시즌 슈퍼레이스에 출전한다.

새롭게 합류한 안재모는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우 감독과 함께 쉐보레 레이싱 팀의 투톱 체제를 완성했으며, 8년 전통의 쉐보레 레이싱 팀에 관록과 패기의 조화를 선사하게 됐다.

/임의택기자 ferrari5@

정보통신 이용 범죄피해 750억

지난해 스미싱, 파밍,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범죄 피해가 8만4000건, 피해액이 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위변조된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발생한 스미싱 피해가 7만6356건, 피해액 4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인터넷상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해 가짜 은행 사이트로 거래를 유도해 피해를 주는 파밍이 3036건, 156억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전화사기인 보이스피싱은 4749건, 553억원의 피해가 접수됐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 범죄가 관련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SF 신입사원' 그들이 사는법

인기 IT 기기·SW로 본 스마트라이프 가상 하루

젊은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IT 기기나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 직장 초년생 '아이티'씨의 하루를 보면 요즘 잘나가는 사람들의 스마트라이프를 파악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AM 06:30
기상-앱 '슬립 사이클 알람'

아이티씨는 수면 패턴을 분석해 알람 시각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이 앱 덕에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전날 밤 스마트폰에 앱을 실행해두면 자면서 뒤척이는 진동을 바탕으로 수면 패턴을 기록해준다.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신 날은 어김없이 숙면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로는 되도록 카페인 섭취를 자제한다.

AM 08:00
출근길-젠하이저 '모멘텀 온이어'

출근길 지하철에서 젠하이저의 헤드폰 모멘텀 온이어로 음악을 듣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곤 한다. 입사 동기들과 이달부터 시작한 영어회화 스터디가 있는 날은 비즈니스 영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틈새 시간을 활용하기도 한다. 부드러운 알칸테라 재질의 이어패드는 쌀쌀한 겨울 바람을 피하는 데에도 제격이다.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세련된 색상 덕에 부서 내에서 스타일리시한 새내기 직장인으로 통한다.

AM 10:00 회의 준비-후지제록스 프린터스 'DP405df'

복잡한 복합기 사용법에 진땀 흘리던 신입사원 고생담은 옛말이다.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DP405df라면 누구나 한눈에 4.3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에서 메뉴 설정이 가능하다. PC 없이도 USB만으로 출력할 수 있다. 스캔한 파일을 e메일로 전송하거나 하드드라이브,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할 수도 있다.

PM 13:00
보고서 작성-와콤 '뱀부 패드'

신입사원 교육 내용을 필기하거나 각종 회의록을 정리할 때마다 와콤 터치 패드 제품인 뱀부 패드 도움을 톡톡히 보고 있다. 컴퓨터 마우스보다 간편한 터치 동작으로 스케치, 드로잉, 손글씨를 더해 창의적인 컴퓨팅 활동을 할 수 있다.

PM 15:00
시장조사-MS '서피스 프로'

영업점으로 시장조사에 나선 아이티씨는 무거운 노트북 대신 태블릿 PC만 들고 나선다.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 PC에서 하던 작업을 그대로 할 수 있다.

PM 19:00
연인과의 데이트-씨게이트 '와이어리스 플러스' 외장하드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무선 외장하드에 담아 태블릿PC로 바로 스트리밍해 보여주니 "자기 최고"라는 찬사가 돌아온다. 거창한 장소를 빌리지 않아도 둘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e스포츠 동아리 연합 '에카' 생각지도 못한 후원사 떴다

47인치 대형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D)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쇼팟미디어가 대학생 e스포츠 동아리 연합 에카를 후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쇼팟미디어는 건전한 e스포츠 문화 확립과 아마추어 게임리그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후원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아마추어 게임리그를 열 때 쇼팟미디어를 설치한 협력 PC방에서 DID를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PC방 업주들에게 푸짐한 혜택도 줄 방침이다. 쇼팟미디어 설치 문의는 전화(032-715-4577)나 e메일(wizno@wizno.co.kr)로 가능하다.

쇼팟 마케팅 담당자는 "쇼팟미디어는 일차적으로 에카를 후원해 건전한 대학 e스포츠 문화 개발을 위해 힘쓸 것이며 점진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쇼팟 DID와 연계해 광고주들과 함께 대회 및 스폰서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카는 카이스트, 서울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단체로 게임을 통한 사회 기여와 국제 교류로 게임에 대한 인식 전환, 건전한 대학 e스포츠 문화와 아마추어리그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트위터 변신전략 '페이스북 따라하기?'

기존 SNS와 화면 유사하게 페이지 디자인 개편 '승부수'

최근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로 '성장의 덫'에 빠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가 '따라하기 전략'을 승부수로 꺼내들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매셔블은 트위터가 페이스북이나 구글플러스와 유사하게 화면 디자인을 바꾸는 방안을 시험 중이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위터가 화면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 사용자에 대해 새로운 화면을 시험 중이라는 설명이다.

시험 중인 새로운 화면을 살펴보면 트위터 프로파일 페이지의 사진과 약력은 예전보다 더 왼쪽으로 밀렸으며, 헤더 사진의 크기가 커졌다.

트윗 창도 보기 쉽게 크게 배치했다. 이는 트윗을 시간의 역순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나열해온 트위터의 화면 배치가 트윗 구독이 늘수록 전체를 파악하기가 까다롭고 단조롭다는 지적 때문으로 분석된다.

매셔블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트위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이 같은 페이지 개편을 단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편은 일단은 웹에만 적용되고 스마트폰 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한편 트위터는 타임라인 뷰(사용자들이 타임라인을 본 횟수)가 지난해 3분기 1590억 건에서 4분기 1480억 건으로 7% 감소했고, 실사용자 증가 비율도 3.9%로 역대 최저로 떨어져 성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다음 뮤직, KT뮤직서 음원 제공받기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KT 뮤직과 '음원 콘텐츠 공동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다음은 다음 뮤직에서 서비스되는 음원을 KT 뮤직으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 뮤직은 음악 콘텐츠 섹션 '뮤직 바'의 '라이징 아이돌' 콘텐츠를 확충하고, 매월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지니스픽' 코너를 신설한다. 다음 뮤직 첫 화면에는 '펀' 탭도 새롭게 추가된다.

이 영역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티스트의 쇼케이스 생중계, 신규 앨범 영상 등 여러 독점 음악 콘텐츠로 채워진다.

이석우 대표 MWC 기조연설

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4'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24~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는 전 세계 이동통신 및 휴대전화 관련 기업이 모여 향후 전략과 업계 동향을 공유하는 통신업계 최대 행사로 국내 벤처기업 대표가 MWC의 서막을 알리는 것은 처음이다. /박성훈기자

구석구석

◆원주 회촌 달맞이 축제
– 날짜: 2월 14일
– 장소: 강원 원주시 회촌 달맞이광장 일대

축제는 전통적인 세시풍속을 계승하고 지역 주민의 새해 안녕과 행운을 기리는 장으로 준비되며 민속놀이마당, 달밤놀이 마당, 난장놀이 마당 등으로 꾸며진다. 쥐불놀이, 윷점 보기 등의 민속놀이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보름달이 뜬 후 시작되는 난장놀이 마당에서는 달집을 태우며 소원을 비는 달집 태우기 행사와 모둠 북 연주, 해금 연주 등을 즐길 수 있다.

◆2014 백운포 달맞이 축제
– 날짜: 2월 14일
– 장소: 부산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축제에서는 대북과 드럼이 어우러지는 퓨전 공연과 오륙도무용단·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 공연, 사람들의 무사 안녕을 비는 기원제 등이 펼쳐진다. 또 보름달이 떠오르는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소망 풍선 날리기와 올해 소원을 빌 수 있는 달집 태우기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소원 적어 새끼줄 달기, 갑오년 새해 덕담 적기, 갑오년 새해 운세 보기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어진다.

◆구룡포 수산물 한마당잔치
– 날짜: 2월 21일~3월 30일
– 장소: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 북방파제

축제는 방문객들이 현지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장터 위주로 운영된다. 시중 가격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대형 게살 비빔밥 만들기 ▲울진 12령 바지게꾼 놀이 마당극 ▲관광객 경매전 ▲바다의 보물을 잡아라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오는 15일부터 5월 말까지 이어지는 '양평딸기축제'에서는 딸기의 맛과 농촌의 멋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양평농촌나드리 제공

얘들아, 딸기밭에 봄마중 가자

양평 농촌체험마을 '딸기축제' 15일 개막
수확·시식·자연체험 등 프로그램 풍성해

봄철 '과일의 여왕' 딸기를 주제로 한 축제가 이제 시작된다. 오는 15일부터 5월 말까지 경기도 양평군 농촌체험마을에서 열리는 '양평딸기축제'가 그 주인공이다. 새콤달콤 봄기운 가득한 신선한 딸기로 다가오는 봄의 향기를 느껴보자.

◆축제 즐기려면 사전 예약은 필수

축제는 먹고 마시는 기존의 축제 형태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봄과 딸기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축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또 축제가 열리는 곳은 ▲뚱딴지마을(강상면) ▲별내마을(용문면) ▲가루매마을(지평면) ▲질울고래실마을(양서면) ▲소리산마을(단월면) 등 총 15곳의 양평 농촌체험마을이다. 사전에 체험하고 싶은 마을을 정해 축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해야 축제를 더욱 신나게 즐길 수 있다.

◆먹고 놀고…"딸기가 좋아요"

축제 기간 동안 모든 마을에서는 딸기와 함께 신나게 놀 수 있다.

우선 모든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하우스에서 재배된 싱싱한 딸기를 직접 딸 수 있는 딸기 따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즉석에서 딴 딸기를 곧바로 맛볼 수 있으며 남은 딸기는 가져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딸기비누 만들기, 딸기호박만두 만들기 및 시식, 딸기 모종 심기, 딸기 페이스페인팅, 희귀 딸기 찾기 게임 등 딸기를 이용한 개성 넘치는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게다가 각 체험마을은 방문객들을 위해 마을의 고유한 밥상을 점심 식사로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마다 특색 있는 행사 손짓

축제에서는 딸기와 함께 축제가 열리는 체험마을의 정과 농촌의 멋에도 취할 수 있다. 청정 딸기를 수확하는 등 다양한 딸기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체험마을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마을마다 다채롭게 펼쳐지는 것이다.

별내마을에서는 가족 소원 만들기, 포토존에서 당나귀 타고 사진 찍기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뚱딴지마을에서는 트랙터 타기, 시루떡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또 마을에 따라 꽃누름 체험, 움집 원시인 체험, 나무 수레 씽씽이 타기, 숲 체험 등의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한강 물 생태 박물관 견학, 왕달팽이농가 견학, 민물고기 생태 학습관 관람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돼 아이들에게는 흥겨운 재미를, 부모에게는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2월 15일~5월 31일(토~토요일)
– 장소: 경기 양평군 농촌체험마을
– 문의: 양평농촌나드리 031)774-5427, 5431

물안개의 바다·천년 은행나무…곳곳 감탄

운치있는 양평의 명소들

경기도 양평군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다. 그만큼 색다른 매력이 있는 양평의 비경을 소개한다.

◆두물머리와 세미원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다. 두물머리라는 명칭도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우리말이다. 400년 된 장대한 느티나무와 이른 아침 물안개 피는 모습이 자연의 운치를 더하며 이곳이 양평 최고의 비경임을 자랑한다. 또 세미원에서는 물 위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연꽃을 만날 수 있고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잇는 배다리에서 바라보는 한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절경이다.

◆물소리길을 걸으며 만나는 풍경

물소리길은 자연을 사랑하는 도보 여행객들을 위한 길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의 강변을 아늑하게 감돌고 있는 물소리길은 자연의 포근함과 여유를 즐기기에 제격인 장소다. 또 길을 걸으며 만나는 풍경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표정처럼 모두 정다운 얼굴을 하고 있고 곳곳에서 만나는 단풍마을, 들꽃마을, 고들빼기마을도 새로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자연의 웅장함을 품은 용문산

천년 고찰 용문사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문사 은행나무로 잘 알려진 용문산. 용문사와 은행나무도 빠지지 않는 양평의 볼거리지만 용문산 정산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암반과 깊은 계곡, 자연의 웅장함은 용문산 최고의 비경으로 꼽힌다. 더욱이 관광지 내 놀이시설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좋은 쉼터가 되는 용문산은 다양한 코스로의 등산도 가능하다.

/양평구청 제공

/황재용기자

‘앰플 비비’ 바르면 3D생얼

천송이의 ‘누드 메이크업 팁’

아이라인 대신 마스카라만 오키드·코랄 컬러 립 연출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극중 천송이(전지현·사진)는 막 자고 일어난 얼굴임에도 변함없는 미모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하나로 다 모아 올린 당고머리에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생얼 같은 얼굴에도 못나 보이지 않는 것은 꼼꼼한 베이스 메이크업 덕분이다.

한스킨 관계자는 “올해 메이크업 키워드는 ‘누드’”라며 “세안을 막 끝내고 나온 듯한 촉촉함에 완벽한 기초 메이크업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귀티 나는 본연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면서도 3분 안에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누드 메이크업 팁’을 공개한다.

먼저 베이스는 소량만 사용해 원래 자신의 피부인 듯 완벽하게 밀착시키고 잡티를 꼼꼼하게 커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스킨의 신제품 ‘바이오 오리진 로얄 앰플 비비’는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부드럽고 가볍게 발리기 때문에 피부결과 톤을 자연스럽게 연출해준다. 특히 이 제품은 별도의 섀딩 없이도 음영을 만들어주는 멀티 제품으로 보다 입체적인 얼굴을 표현할 수 있다.

트렌디한 누드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아이라인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 대신 속눈썹만 컬을 강조한다. 조성아 22의 ‘검 X 마스카라’는 실타래처럼 연장감이 뛰어난 검 왁스 제형으로 덧바를수록 속눈썹이 길어진다.

입술 역시 오키드·코랄 등 자연스러운 컬러로 바른 듯 바르지 않은 듯한 누디한 립 메이크업이 각광받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천송이 립스틱’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입생로랑 베르니 아 레브르 레블 누드 105번 코랄 홀드업’은 누드 립스틱의 지루한 공식을 깨는 새로운 누드 틴트로, 컬러를 머금은 3D 투명 펄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누드 컬러를 선사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BBQ, 치킨 즐기는 인도네시아로!

현지 프랜차이즈 진출 위해 굿웨이그룹과 MF 계약 체결

제너시스BBQ가 인도네시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나섰다.

BBQ는 12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리조트 전문그룹인 굿웨이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BBQ의 인도네시아 MF 계약은 코트라(KOTRA), 외교통상부와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양국의 사업 파트너 기업을 소개하고 보증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12일 윤홍근(왼쪽 둘째) 제너시스 BBQ 대표와 라디우스 위보우(왼쪽 셋째)굿웨이그룹 회장이 체결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날 윤홍근 BBQ 회장은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현재 베트남·싱가포르·태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해 있는 BBQ 프리미엄 카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바 1호점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192개국 5만 개 점포를 개설해 한국 토종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품격 외식 문화를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우스 위보우 굿웨이 그룹 회장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하루 3700만 마리 치킨을 소비할 만큼 닭고기를 좋아한다”며 “이번 BBQ 그룹과의 결혼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프랜차이즈 업계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백아란기자

박준뷰티랩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훈훈

10년째 재능 기부 지속 최근 소록도 방문 행사

박준뷰티랩이 다양한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준뷰티랩은 지난해 말 전 지점 원장들과 함께 소록도를 방문해 이미용 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올 들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가 커트 봉사를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박준뷰티랩은 10년 전부터 지역별 이미용 봉사는 물론 군부대 기부와 봉사,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 구세군·청음회관 등 특별 복지단체에 재능기부를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슬로건 ‘아름다운 동행’에 맞춰 일찌감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면서 “고객의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박준뷰티랩의 따뜻한 마음을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보이며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류현진~라면’ 안 까먹겠네

포장 리뉴얼 제품들 눈길

유통업계가 제품 포장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는 등 리뉴얼을 통해 고객 끌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기업들의 리뉴얼은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에서 벗어나 제품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먼저 오뚜기 진라면은 광고모델인 류현진의 이미지를 봉지 디자인에 삽입해 출시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11월 진라면 먹방 광고로 온라인에서 연일 화제가 됐으며, ‘류현진라면’이라는 진라면의 또 다른 이름을 탄생시켰다. 오뚜기는 이런 소비자 반응에 따라 류현진 이미지를 기존 진라면 봉지 디자인에 삽입시켜 출시했다. 또 진라면 류현진 스페셜 패키지(10개 입)도 제작했고 박스 내 당첨 응모권을 통해서 류현진 사인볼을 증정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오비맥주는 ‘카스 후레쉬’의 BI(Brand Identity)를 더 역동적인 이미지로 교체하고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마케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1994년 제품 출시 이후 6번째다. 새 디자인은 기존 제품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카스 후레쉬 브랜드 로고의 정형성을 강조해 가시성을 높이고 젊고 모던한 이미지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스킨케어 브랜드 크리니크(CLINIQUE)도 남성 스킨케어 제품 ‘크리니크 포 맨(CLINIQUE FOR MEN)’을 리뉴얼 출시했다. 크리니크의 새로워진 남성 스킨케어 ‘크리니크 포 맨’은 남성 고객들이 쉽게 제품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명을 좀 더 쉬운 이름으로 변경하고 패키지 디자인도 시크하고 고급스러운 블랙 색상으로 단순화시켰다.

/정영일기자

‘VDL 화장품+길리안 초콜릿’ 쏩니다 LG생활건강의 코스메틱 브랜드 VDL이 12일 서울 명동점에서 벨기에 초콜릿 브랜드 길리안과 함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VDL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13일까지 VDL 명동점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매일 214명의 여성에게 VDL 화장품과 길리안 초콜릿으로 구성된 선물을 증정한다. /LG생활건강 제공

웅진플레이도시 ‘초콜릿 스파’에 풍덩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스파와 프러포즈 이벤트를 선보인다.

웅진플레이도시는 초콜릿을 테마로 한 ‘초콜릿 스파’를 준비할 예정이다. 또 14일 밸런타인데이 당일과 2월 매 주말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초콜릿을 나눠주는 깜짝 이벤트도 진행한다.

연인들을 위한 독립된 스파도 마련된다. 실내 스파존에 위치한 독립 공간 스파빌에는 월풀 스파와 선베드, 아로마 입욕제와 향초 등이 구비돼 있어 스파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웅진플레이도시는 공식 페이스북을 방문해 고백받는 대상과 프로포즈 사연을 남긴 총 30 커플을 추첨해 워터파크&스파 이용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한정판 선물’로 우리 사랑 더 특별하게!

고디바 ‘메사쥬 쇼콜라 콜렉션’ 코카콜라 ‘메시지 팩’ 등
밸런타인·화이트데이 앞두고 스페셜 에디션 출시 바람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등이 이어지면서 이성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줄 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식음료 업계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특정 일의 ‘데이 특수’를 잡기 위해 앞다퉈 이색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한정판 제품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한정판 제품은 패키지부터 제품 구성, 가격 등을 일정 기간 한정 수량만 판매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페셜한 아이템으로 인정받는다.

먼저 밸런타인데이 1순위 선물인 초콜릿 한정판이 눈길을 끈다. 고디바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밀크 초콜릿과 고디바의 베스트셀러 골드 프랄린 초콜릿으로 구성된 하트 패키지의 리미티드 제품인 메사쥬 쇼콜라 컬렉션을 선보였다. 허쉬코리아는 기존의 키세스 제품과 가격은 같지만 20% 더 많은 양과 사랑을 고백하는 날에 어울리도록 핑크색 포장지에 여러 개의 하트 모양을 넣어 디자인한 보너스 패키지를 출시했다.

음료 업계도 한정판 제품을 내놨다. 코카콜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밸런타인 기획팩’(사진 왼쪽)을 6일부터 전국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두근두근’ ‘매력있어’ ‘자기야’ ‘사랑해’ 등의 메시지로 구성된 기획팩이외에 ‘마음을 전해요’의 ‘남친’ ‘여친’ ‘감동이야’ ‘내맘알지’ ‘사귀자’ 등의 문구를 활용할 수 있다. 또 13일부터 15일까지는 용산 CGV에서 내가 원하는 닉네임 또는 메시지의 ‘마음을 전해요’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해피 팩토리’ 프로모션을 벌인다.

KGB 보드카 수입업체 인디펜던트리쿼코리아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머드쉐이크 초콜릿’ 스페셜 패키지를 한정 판매하고 있다.

패션·뷰티 업계에서도 밸런타인데이 한정판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시계 브랜드 스와치(SWATCH)는 사랑스럽고 달콤한 디자인의 스페셜 에디션 ‘스위트 밸런타인’ 시계(오른쪽)를 출시했다. 패션 섭스크립션 커머스 바이박스는 류수진 스타일리스트가 큐레이팅한 한정판 ‘로맨틱 박스(Romantic Box)’를 출시했다.

남성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랩 시리즈(LAB SERIES)는 토블론 초콜릿이 함께 구성된 스킨케어 선물세트 4종을 오는 7일부터 한정 판매한다. 아모레퍼시픽 계열의 남성 화장품 브랜드 라네즈옴므는 ‘라네즈옴므 액티브워터 크림 밸런타인데이 에디션’을 지난달 한정 출시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떠먹는 비피더스’ 청포도 들었네

푸르밀 웰빙 신제품 출시
성인병·피로해소 등 도움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청포도가 함유된 ‘떠먹는 비피더스 청포도’를 출시했다.

청포도는 적포도에 비해 칼륨 함량이 높아 성인병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빈혈과 충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이뿐 아니라 포도당과 구연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체내 노폐물 제거와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특히 청포도에 함유된 타닌 성분과 콜리 성분은 장운동 활성화 및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떠먹는 비피더스 청포도에 함유된 유산균은 위산을 통해 장까지 살아가 장 정착률이 높은 프로바이오틱 비피더스 유산균으로 장내 균의 안정화를 도와 면역력을 증진시켜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품은 가까운 할인점 및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1팩(4개입) 기준 2700원이다.

푸르밀 관계자는 “기존 비피더스의 브랜드 파워에 웰빙 과일 청포도의 상큼한 맛이 더해져 20~40대 여성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코리아! 파이팅! 야식세트 40% 할인

소치올림픽 맛있는 응원
강강술래 23일까지 행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이달 23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용 야식세트를 40% 할인 판매한다.

칠칠한우떡갈비(360g×1박스)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2박스)로 구성된 ‘코리아세트’는 2만8300원, 통등심돈가스(720g×1박스)와 모짜렐라돈가스(720g×2박스)로 구성된 ‘파이팅세트’는 3만6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종합순위 10위권 달성’을 기원하는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 10봉으로 구성된 ‘텐텐세트’도 3만6000원에 판매한다. 응원에 지친 고객들의 기력 보충에 좋은 100% 한우사골곰탕(800㎖·30인분·10팩)도 6만4800원에 살 수 있다.

전 매장에서는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날 영업 종료 시까지 구이 메뉴를 시키면 테이블당 하나씩 한우 육회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ullai)에 ‘좋아요’를 누른 후 응원 이벤트 글에 오는 16일까지 격려 댓글을 남기면 3명을 추첨해 돈가스(통등심·모짜렐라 각각 1박스)를 보내준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포도의 80배 함유된 ‘명지 아로니아 킹스베리’(23만원), 다채로운 음악과 춤으로 버무린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 공연티켓, 도서출판 길벗의 ‘미러리스 카메라 무작정 따라하기’와 ‘소외된 90%를 위한 비즈니스’를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예가담가 “세시음식 판매”

편의점 꼬마김치 한울의 반찬 브랜드 예가담가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13~14일 세시 음식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판매 품목은 오곡밥을 비롯해 취나물·고구마순나물·시래기나물·호박고지나물·토란대나물 등 국산 나물류 9종이다. 가격은 오곡밥 한 팩(350g) 5000원, 나물류 9종(100g당) 4000원이다. 롯데백화점 잠실점·평촌점·미아점 식품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팔도 ‘일품해물라면’ 경품

팔도가 27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를 통해 ‘일품해물라면’ 2000개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팔도 페이스북(www.facebook.com/paldofood)에서는 ‘일품해물라면 OX퀴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일품해물라면’ 1박스(20입)를 비롯해 영화예매권 등을 제공한다. 또 블로그(www.paldofoodblog.com/)에서는 개그콘서트 ‘끝사랑’의 주인공 정태호와 김영희가 출연하는 포토툰을 보고 마지막 대사를 댓글로 응모하면 50명을 추첨해 ‘일품해물라면’ 1박스(20입)씩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 밸런타인 패키지’ 출시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해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마이 밸런타인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과 카페 엘리제 2인 조식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객실 내 인터넷과 영화 1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호텔은 체크아웃 시간을 오후 2시로 연장했으며 14일에 투숙하는 고객 중 클럽 호라이즌에서 진행하는 ‘밸런타인데이 스페셜 이브닝’을 예약할 경우에는 1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문의: 02)2222-8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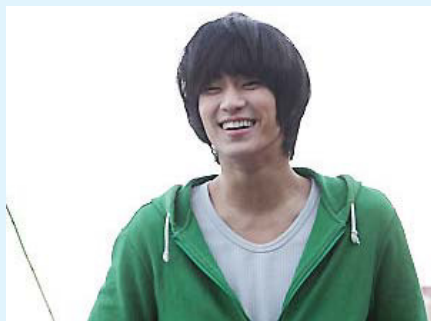
제이에스티나 핸드백 ‘주노’

패션 잡화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클래식한 디자인과 컬러감이 돋보이는 핸드백 ‘주노’를 내놨다.

군더더기없는 심플한 디자인에 로고를 배제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으며, 체인 스트랩으로 여성 특유의 우아함까지 표현했다.

특히 가방 안쪽에 도트 패턴을 적용해 백을 열었을 때 반전의 멋을 느낄 수 있다. 색상은 젠틀한 매력의 블랙과 강렬한 느낌의 레드 컬러 외에도 우아한 핑크, 상큼한 라이트 블루 등이 있다.

metro entertainment

어수룩한 시골소년·바보 위장한 간첩·순정파 외계인…'연기 변신의 귀재'

왼쪽부터 김수현이 출연한 대표적인 흥행작인 드라마 '드림하이'(2011),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2014).

매력 무한대…그가 뜨면 작품 히트!

'별그대' 포함 5연타석 흥행 김수현

연예계는 그야말로 김수현 전성시대다. KBS2 '드림하이'를 시작으로 MBC '해를 품은 달',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도둑들'에 이어 현재 방송 중인 SBS '별에서 온 그대'까지 5연타석 홈런이다. 아무리 톱스타라도 5연속 히트를 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김수현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는 작품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비결은 뭘까.

 # 독특한 캐릭터 열연

김수현의 작품 선택 비결이 영리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기존의 20대가 주로 멋진 재벌 2세에 한정된 역할로 인기를 구축하는 반면 김수현은 지금까지 독특한 매력을 갖춘 캐릭터를 선택하며 팬층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성숙한 연기·모델같은 몸매… 다양한 연령대 여성에게 인기

'드림하이'에서 어수룩하지만 꿈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는 시골 소년으로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데 이어 '해를 품은 달'에서는 아역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순애보와 카리스마를 갖춘 젊은 가상의 왕으로 변신해 40% 이상의 시청률을 견인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다음 행보로 김윤석·김혜수·이정재·전지현 등 톱스타들이 총출동해 1300만 관객을 동원한 '도둑들'에서 매력적인 막내 도둑 역을 맡아 스크린 신고식까지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어 주연작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바보로 위장하고 살아가는 간첩 역으로 반전 매력을 선보이며 700만 관객을 동원해 충무로에서도 흥행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는 기존에 상상하지 못한 400년 전 조선에 온 외계남 역을 맡아 남자답고 순정적인 모습으로 또다시 여심을 흔드는 중이다.

작품을 선택하는 게 전적으로 김수현 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더욱 영리한 행보다.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최종 작품 선택을 배우에게 일임하는 식으로 운영해왔다"면서 "김수현은 작품을 고를 때 캐릭터의 비중보다는 매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지금의 인기는 김수현 본인의 매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또래 배우들 중 단연 돋보이는 성숙한 연기력을 지녔고, 조각미남은 아니지만 매력적인 얼굴과 모델 같은 몸매, 저음의 목소리는 10대에서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 팬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김수현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고르는 작품 선택도 영리하지만 연기를 참 잘하는 배우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더 크다"면서 "다만 더 큰 배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감성의 연기까지 표현할 수 있는 연기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하고 잠재력이 큰 배우다" 섭외 1순위…해외서도 관심 커

 # 내달부터 亞 팬미팅 투어

지금까지 기록한 5연속 히트도 놀랍지만 김수현의 인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예계 섭외 1순위로 주목받고 있는 그는 최근에는 키이스트 자회사 콘텐츠K가 제작하는 드라마 '밤을 걷는 선비'에 뱀파이어라는 것을 감춘 조선시대 선비 역으로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에 휩싸이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기도 했다.

국내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입지를 해외로도 넓힐 전망이다. '별에서 온 그대'가 종영한 직후인 다음달 중순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대만·중국·일본·싱가포르·태국까지 총 6개국 8개 도시를 돌며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진행한다.

키이스트 관계자는 "아시아 전역에서 김수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국내 드라마를 해외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인기의 시차가 없어진 것 같다"면서 해외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소녀시대의 '품격' vs 스텔라의 '파격'

12일 출시된 스텔라의 첫 번째 미니앨범 '마리오네트'에 담긴 멤버들의 재킷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효은·민희·가영·전율. /탑클래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신곡 '미스터미스터' '마리오네트' 티저 극과 극 행보

걸그룹 바람이 2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가 1년여 만에 컴백을 알리며 가요계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신인 걸그룹 스텔라가 파격 노출을 앞세워 남심을 흔들고 있다. 티저 영상 공개와 함께 국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싹쓸이하는 등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명품'과 '자극'이라는 차별점이 있다.

◆ 소녀시대 '미스터미스터'

그동안 소녀시대는 과도한 노출 없이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음악성을 앞세워 대중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덕분에 국민 걸그룹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24일 발표할 새 미니앨범 '미스터미스터'에 대한 기대감은 국내 가요계를 넘어서고 있다. 해외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빌보드는 11일 K-팝 칼럼 코너 케이타운에 '소녀시대 싱글 '미스터미스터'로 컴백 발표'라는 타이틀로 컴백 소식을 상세히 다뤘다.

소녀시대 '미스터미스터' 티저

타이틀곡 '미스터미스터'는 R&B 사운드가 돋보이는 댄스곡으로 비욘세·저스틴 팀버레이크·크리스 브라운 등 유명 팝스타들과 함께 작업한 세계적인 프로듀싱팀 더 언더독스의 작품이다. 소녀시대와 더 언더독스가 어떤 음악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텔라 티저 논란 '자극'

스텔라는 컴백을 앞두고 파격적인 홍보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가요계에 불어온 '섹시대전'의 끝을 보는 듯하다. 12일 티저 영상을 공개하자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섹시 대란' 막차를 타게 된 스텔라는 더욱 파격적인 노출을 감행하고 있는 양상이다. 영상에는 란제리를 입고 허벅지, 가슴골, 엉덩이 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며 과감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개설한 페이스북 이벤트 '오빠, 시키는 대로 다 해줄게 마리오네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스텔라의 티저 사진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놓고 '좋아요'가 기준을 넘어설 때마다 모자이크를 지운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섹시 댄스를 추겠으니 음악을 지정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섹시 댄스 동영상을 직접 찍어 공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스텔라의 파격적인 홍보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 걸그룹 섹시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이다. 그만큼 노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젊은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 팬심을 자극하기 위해 더욱 과감한 노출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위너, 2NE1 월드투어 게스트로 무대 선다

YG엔터테인먼트가 8년 만에 내놓는 남성 신인 그룹 위너(사진)가 일본에 이어 전 세계 팬들과 만난다.

위너는 다음달 1일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리는 2NE1의 두 번째 월드투어 'AON(ALL OR NOTHING)'의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위너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빅뱅의 일본 6대 돔 투어에서도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며 일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2NE1의 월드투어 게스트로 무대에 서게 된 위너는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후 이즈 넥스트: 윈'의 파이널 생방송 이후 4개월여 만에 국내 팬들에게 공연하게 됐다.

위너는 자신들이 주연을 맡고 있는 엠넷 리얼리티 프로그램 '위너TV' 촬영을 하면서 2NE1 월드투어 게스트로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10부작인 '위너TV'는 14일 막을 내리며 이날 방송에서는 2NE1이 위너의 숙소를 찾아가 격려하는 장면이 전파를 탄다.

한편 2NE1 월드투어는 일본·중국 등 9개 국 13개 도시에서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유순호기자

31곡 저작권 되찾은 조용필

레코드사 '배포·복제권 이전' 공증서류 접수

'가왕' 조용필(사진)이 31개 히트곡의 저작권을 되찾았다.

조용필의 과거 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고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밝혔다.

저작권 개념이 허술했던 1986년 음반과 저작권 계약을 한 조용필과 음반사 측은 1997년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고, 2004년 레코드사 측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용필은 계약에 해당하는 31곡이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 저작권료를 받았지만,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레코드사 측에 저작권료를 내왔다.

조용필의 소속사 YPC프로덕션은 "지난해 4월 이 내용이 외부로 불거지면서 레코드사 측과 해묵은 감정을 털고 다시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음악 저작권 보호의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계약에 포함된 곡은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슬픈 미소' '어제 오늘 그리고' '촛불' '너무 짧아요' '그대여' '미지의 세계' 등이다. /유순호기자 suno@

AOA 15일 명동 프리허그 이벤트

'짧은 치마' 1위 공략 실천

걸그룹 AOA(사진)가 팬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는 15일 명동에서 프리허그 실천에 나선다.

12일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에 출연해 "만약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한다면 명동에서 프리허그 이벤트를 하겠다" 고 공약을 건 AOA가 지난 9일 '짧은 치마'로 SBS '인기가요'에서 1위를 수상했다.

AOA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15일 프리허그 이벤트에 이어 17일 저녁 8시 광화문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의 미니 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 /서승희기자 ssh814@

이상화 500m 중계 대결… 김성주 웃다

방송인 김성주(사진 왼쪽)가 노련한 진행으로 MBC의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중계 시청률을 1위로 이끌었다.

12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이상화(25·서울시청)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가운데 MBC 중계 방송 '소치동계올림픽 2014'는 시청률 18.6%를 기록해 KBS2 '동계올림픽 2014 여기는 소치'(16.1%)를 누르고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이 같은 성과는 과거 김성주의 풍부한 경험과 노련함이 한몫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유명해진 김성주는 2000년 공개 채용으로 입사하기 전 케이블 채널인 한국스포츠TV(현 SBS스포츠)에서 스포츠 캐스터로 활동했다.

김성주는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차범근·차두리 부자와 함께 중계하며 호평받았고, 2007년 프리랜서로 독립한 뒤 2009~2010년에도 케이블 채널인 MBC스포츠플러스에서 야구 캐스터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김성주는 '아빠! 어디가?' 촬영을 위해 일시 귀국한다. 김성주 측 관계자는 "15일 '아빠! 어디가?' 촬영차 귀국한다"며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한 뒤 18일 다시 소치로 떠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치로 돌아간 김성주는 오는 20일 진행되는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중계 방송에 예정대로 참여한다. /양성운기자 ysw@

이종석 中팬과 밸런타인 데이트

배우 이종석(사진)이 밸런타인데이에 중국 팬들을 만난다.

소속사 웰메이드이엔티는 12일 "이종석이 14일 중국 상하이 이스포츠 아레나에서 2014 아시아투어 팬미팅 '프레젠트'를 연다"고 밝혔다. 타이완에 이어 중화권 두 번째인 상하이 팬미팅은 이미 2200석 전석 매진됐다.

이종석은 이번 팬미팅에서 다양한 게임과 토크로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팬들에게 고백 노래를 들려주고 직접 쓴 편지를 읽는 특별한 무대도 마련한다.

웰메이드이엔티는 "무대 선곡부터 무대 의상, 연출까지 이종석의 손을 직접 거쳤을 정도로 많은 준비를 했으니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석은 4월 방영될 SBS 새 월화극 '닥터 이방인'에서 천재 탈북 의사 박훈 역을 맡았다. /탁진현기자

호러퀸 도전 나서는 김소은

'소녀무덤' 주연 캐스팅

배우 김소은(사진)이 호러퀸에 도전한다.

지난해 드라마 '마의'에서 사랑스러운 매력의 숙휘 공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김소은이 공포영화 '소녀무덤'에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소녀무덤'은 학원폭력으로 왕따를 당해 죽은 한 소녀가 한 소년의 힘을 빌려 한을 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공포 스릴러물로, 김소은은 주인공 소녀 역을 맡아 극을 끌어간다.

드라마 '자매바다'를 통해 데뷔한 김소은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와 '바람불어 좋은 날' '천번의 입맞춤' '마의' 등의 작품을 통해 안방극장에 사랑스러운 매력을 전달하며 인기를 얻어왔다. 스크린에서는 영화 '두 사람이다'에 이은 두 번째 공포 스릴러 장르에 도전해 호러퀸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감을 높인다. /양성운기자 ysw@

'로맨틱 시티' 테마 기획전 19일부터

CGV 다양한 이벤트 마련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인 극장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CGV는 '로맨틱 시티'(사진)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다. 다음달 14일까지 CGV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사랑 고백 엽서를 작성해 응모한 100쌍의 커플을 선정해 로맨틱 음악회 '플라이 투 로맨틱 시티'에 초대한다.

다음달 20일 CGV 여의도에서 진행되는 이 음악회는 좋아서하는밴드 등 홍대신의 어쿠스틱 뮤지션들이 꾸미는 공연이다. 음악회 당일 참석자 중 세 커플을 즉석에서 추첨해 둘만의 로맨틱한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왕복 항공권을 제공한다.

사랑 고백 엽서는 CGV 여의도·영등포·왕십리·용산·일산·상암·신촌아트레온·청담씨네시티에 비치된 우체통에 직접 응모할 수도 있다.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로맨틱 시티를 주제로 한 영화들을 모은 특별기획전 '스크린 온 로맨틱 시티'도 개최한다.

'몽상가들' '시작은 키스' '라붐' '미드나잇 인 파리' '인사이드 르윈' 등 10편의 영화가 19~25일 CGV 신촌아트레온과 영등포에서,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CGV 여의도·청담씨네시티에서 상영된다.

롯데시네마는 2월 한 달간 무인발권기, 홈페이지, 모바일로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500명에게 뮤지컬 '위키드'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또 500명에게는 스페셜 상영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매점에서 콤보세트나 팝콘을 구입 시 1000원을 추가하면 젤리가 토핑된 팝콘을 제공하는 '사랑의 토핑' 이벤트도 16일까지 진행된다. /유순호기자 suno@

● 올블랙 슈트입은 주인공 ● 직접 게임하는 듯한 전투신 ● 세련된 영상미

120분 지루할 틈이 없다

film review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 로보캅

"음~ 치키." 촌스럽고 무거웠던 로보캅이 올 블랙 슈트의 세련미를 풍기며 돌아왔다.

27년 전인 1987년 '로보캅'을 시작으로 1990년 '로보캅 2', 1993년 '로보캅 3', 2000년 '로보캅 4'에 이르기까지 은빛 슈트를 고집했던 그가 작심하고 변화를 꾀했다. 인간미를 가진 동네 로봇 경찰 이미지를 벗고 진정한 슈퍼 히어로로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선택한 변화였다.

13일 개봉 예정인 '로보캅'(사진)은 2028년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다국적 대기업 옴니코프가 인간을 대체할 경찰 로봇 기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인간의 감정과 로봇의 정확함을 혼합한 로보캅을 개발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 실험의 주인공으로 범죄자를 쫓다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경찰 알렉스 머피(조엘 킨나만)가 발탁된다. 로보캅이 된 그는 자신이 로봇인지 인간인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느끼지만 이내 슈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영화에 갈등을 불어 넣는다.

2014년 버전의 '로보캅'은 러닝타임 121분 중 절반인 60분가량을 로보캅 탄생 배경에 할애했다. 하지만 지루함은 없다. 감각적인 시각 효과를 통해 마치 곧 다가올 미래를 여행하듯 미래 사회를 실감 나게 구현했다.

히어로 영화에 필수적인 전투신도 인상적이다. 장면마다 로보캅의 시선을 따라가는 기법으로 촬영돼 마치 관객이 직접 게임을 하는 듯했다. 창고신에서는 악당들이 조명을 끄자 스크린도 컴컴해져 앞을 볼 수 없는 로보캅의 상황을 관객이 그대로 느끼게 된다.

로보캅의 고글에 비친 열감지 영상, 적을 한 명씩 죽일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알람 메시지 등으로 로보캅과 하나 되는 순간을 맛볼 수 있다.

제58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호세 파딜라 감독이 감각적이고 세련된 영상미로 새로운 로보캅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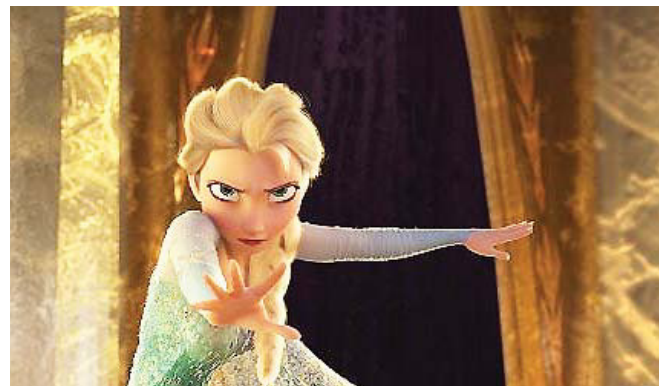
미국 드라마 '더 킬링'의 조엘 킨나만이 로보캅을 열연했다. 히어로물의 단골인 게리 올드먼, '배트맨'의 주인공 마이클 키튼,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 새뮤얼 L 잭슨까지 출연진이 화려하다. 12세 이상 관람가.

'겨울왕국' 800만 돌파… 역대 외화흥행 3위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사진)이 1000만 관객 달성을 노린다.

12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 결과에 따르면 '겨울왕국'은 전날 11만3340명을 불러 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802만444명으로 개봉 27일 만에 800만 명을 넘어서며 1000만 명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현재 역대 외화 흥행 순위로 '아바타'(1330만2637명)와 '아이언맨'(900만1309명)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은 데 이어 이후 9일 만에 200만 명, 11일 만에 300만 명, 24일 만에 700만 명을 넘는 등 빠른 흥행 속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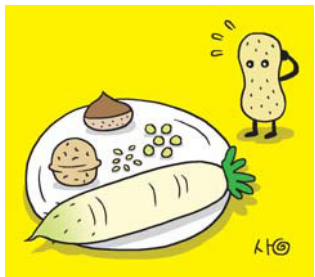
영화가 현재까지 여전히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기록 중인 데다 각종 음원차트를 휩쓴 주제곡 '렛잇 고' 돌풍도 여전히 거세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0만 관객 돌파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얼어버린 왕국의 저주를 풀 유일한 힘을 가진 자매 엘사와 안나의 모험담을 환상적인 동화와 화려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조합으로 그려낸 점이 아이뿐 아니라 어른 관객에게도 어필했다는 평이다.

한편 이날 일일 박스오피스 1위는 '수상한 그녀'(14만6187명)가 차지하며 개봉 21일 만에 누적 관객 6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남자가 사랑할 때'(3만4345명), '또 하나의 약속'(2만2798명), '프랑켄슈타인: 불멸의 영웅'(1만8229명)이 3~5위에 올랐다. /탁진현기자 tak0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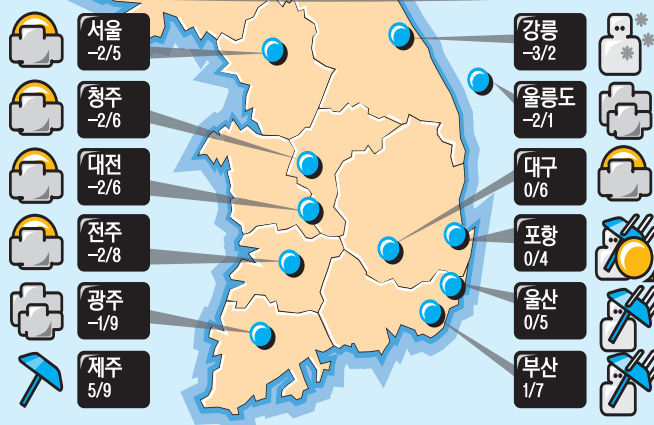
대보름날 부럼은 땅콩 대신 무?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정월 대보름에는 부럼을 깨무는 것이 우리 전통인데 부럼용 견과류의 대표는 땅콩이다. 다음으로 밤이나 호두, 잣, 은행을 꼽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옛날 문헌에는 대보름 때 땅콩을 깨문다는 기록이 없다.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에도 부럼으로 밤과 호두, 은행, 잣, 무를 깨문다고 나온다. 땅콩 대신 엉뚱하게 무가 들어있다. 1925년의 '해동죽지'에도 땅콩은 보이지 않는다. 호두와 잣을 깨문다고 나온다.

대보름 부럼에 땅콩이 포함된 것은 1946년 발행된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이다. 여기에도 새벽에 밤, 호두, 잣, 무를 깨문다고 하면서 괄호 속에 요즘에는 무가 빠지고 대신 낙화생을 깨문다고 적혀있다. 낙화생(落花生)은 땅콩의 한자 표기로 이 무렵에야 땅콩이 무를 대체했던 모양이다.

예전 부럼에는 왜 땅콩이 없을까? 땅콩이 늦게 전해졌기 때문인데 조선 정조 무렵에야 중국에 간 사신들이 처음 땅콩을 구경하고 맛을 봤다. 귀국할 때 종자를 가지고 왔지만 재배가 쉽지 않아 19세기 중반에야 집에다 땅콩을 심었다는 기록이 보이니 널리 퍼진 것은 20세기 이후다. 때문에 20세기 초중반까지도 부럼에 땅콩은 보이지 않고 무를 깨물었던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콩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고 아몬드는 최근에 전해진 견과류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다. 조선 사신들이 땅콩을 처음 구경한 정조 무렵, 한양 남산에 이미 아몬드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아몬드가 땅콩보다 먼저 전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땅콩은 원산지가 남미이지만 아몬드는 서역인 페르시아다. 대보름 부럼과 관련된 뜻밖의 상식이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4	8	1	5	2	7	6	3	9
2	9	6	4	3	1	7	8	5
3	7	5	8	9	6	1	4	2
1	5	4	6	8	3	2	9	7
6	3	7	9	5	2	8	1	4
8	2	9	7	1	4	3	5	6
7	4	8	1	6	9	5	2	3
5	6	2	3	4	8	9	7	1
9	1	3	2	7	5	4	6	8

7	8	6	3	9	2	5	4	1
9	4	2	5	7	1	3	6	8
3	1	5	4	6	8	7	2	9
5	2	3	1	4	6	9	8	7
8	6	1	7	5	9	2	3	4
4	7	9	8	2	3	1	5	6
2	3	7	9	8	4	6	1	5
6	5	4	2	1	7	8	9	3
1	9	8	6	3	5	4	7	2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퍼즐러 미디어 리미티드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서른 넘은 아들 아직 직장 없어 2017년 지나면 효자 노릇 할 것

선주이 여자 48년 3월 15일 음력 오전 7시45분

Q 6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아들(1981년 4월 12일생)은 직장을 못 구해 제가 궂은일을 다닙니다. 조그만 빌라가 있는데 싸게 팔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뒤 월세를 놓을까 고민 중입니다.

A 중용의 도를 잃고 쟁론이 많으면 불리한데 재물운이 대운에서 병지에 와 있으므로 토(土) 사주가 계획을 잘하고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빌라는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돈이 되지 않지만 지금 팔아버린다면 돈을 다 날리게 됩니다. 아드님은 계수(癸水) 사주가 정인격(正印格)으로 의지력인 비겁(比劫:나와 동급의 오행)이 허약해 주관이 없습니다. 조상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자기 일터가 없는 사주이니 사업은 안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당장 취업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식상(食傷:내가 생해주는 오행)이 없는 사주이니 금기(金氣)가 살아나는 2017년 지나 효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사업 수입 시원찮아 2018년 부동산으로 큰돈 벌어

콘서트 남자 77년 7월 7일 양력 오후 4시

Q 나이는 있는데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돈을 벌어도 지출이 많습니다. 언제쯤 이상에서 헤매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A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형상으로 인내심이 있어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며 처덕도 있습니다. 관고(官庫:관직의 창고)에 칼을 든 사주로 2018년부터 사업을 통해 재물과 인연이 있습니다. 재물운이 크게 발복할 수 있는 사주이며 파란만장한 가운데 부동산으로 돈을 모으게 됩니다. 2014년은 등라계갑(藤蘿繫甲:덩굴풀이 큰 나무를 휘어 감고 올라감)운을 맞이해 담쟁이덩굴이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격으로 나무 목(木)씨 성 가진 분의 도움이 있는 반면 7~8월에는 이성과의 구설수가 있으니 말을 아껴서 하십시오. 간이나 위 질환에 유의해야 하며 음력 6월에는 곡각살로 수술의 염려가 있으니 음주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2월 13일 (음 1월 14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떠나간 버스는 잊어라. **60년생** 참고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 **72년생** 숙원을 이뤄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84년생** 담당한 일은 뜻밖에 큰 성과를 거둔다.

49년생 옛날 생각하며 즐겁게 하루 보낸다. **61년생** 우울하면 가방 싸고 떠나라. **73년생** 돈 문제는 대안이 없다. **85년생**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정보 믿지 마라.

50년생 변수 있어도 소신껏 추진할 것. **62년생** 갈망하던 길을 찾는다. **74년생** 열심히 일하지 말고 완벽하게 일하라. **86년생** 사랑의 시소 게임이 유쾌하게 한다.

51년생 유혹에 넘어가면 낭패. **63년생** 새 일 하려면 탑 쌓듯 신뢰 쌓아라. **75년생** 세상 물정 모르는 배우자 때문에 답답하다. **87년생** 과음으로 인한 실수 조심.

52년생 예감이 안 좋으면 외출 삼가라. **64년생** 음흉한 처세술이 필요하다. **76년생** 변수가 많으니 목표를 구체화할 것. **88년생** 공들인 연인이 마음의 문 연다.

53년생 자녀가 웃음보따리를 선물한다. **65년생** 중요한 일은 오후나 밤에 시작하라. **77년생** 고민이 해결돼 상쾌하다. **89년생** 튀는 행동으로 인한 구설수 주의.

42년생 오르막 오른 뒤 내리막으로 가는 격. **54년생** 술자리 길면 실수로 이어진다. **66년생** 시비로 인한 관재수 조심할 것. **78년생** 땀 흘린 만큼 열매 풍성하다.

43년생 중매한 일은 결실 맺는다. **55년생** 외출 땐 돌발 사고에 유의. **67년생** 등 따뜻하고 배 불러 부러울 게 없다. **79년생** 공공장소에서 귀중품 분실에 주의하라.

44년생 사람 소개는 신중할 것. **56년생** 자영업자는 접대할 사람이 많아진다. **68년생** 울적할 땐 가볍게 한잔하는 게 좋다. **80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45년생 조급하면 손해 부른다. **57년생** 찬성·반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하루 될 듯. **69년생** 새로운 다짐이 멋진 결과 선물한다. **81년생** 부모와의 소통에 신경 써라.

46년생 뜻밖의 횡재에 환호. **58년생** 약속 번복하면 신뢰만 잃는다. **70년생** 직장 옮기는 일은 당분간 생각지도 마라. **82년생** 손꼽아 기다리던 기회를 잡게 된다.

47년생 고민 해결에는 가족의 도움이 약. **59년생** 자녀와 다투는 일 피하라. **71년생** 부탁한 일은 시간이 지연된다. **83년생** 결과 실망스러워도 내일을 생각할 것.

metrosochi

‘살아있는 동계올림픽 역사’ 이규혁 아듀!

스피드스케이팅 1000m 21위… 24년 질주 마무리
6번째 올림픽 의미…기대주 모태범 노메달 수모

‘스피드 코리아’의 살아 있는 역사 이규혁(36·서울시청)의 아름다운 질주가 24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규혁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1분10초049로 40명 중 21위로 경기를 마쳤다. 1991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한 그가 태극마크를 달고 뛴 마지막 레이스였다.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를 시작으로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에 이어 무려 6번째 올림픽 무대를 밟은 한국 스포츠계의 영웅이 보여준 투혼은 성적을 떠나 큰 의미를 남겼다.

올림픽 노메달이라는 지독한 악연을 끝내 끊지 못했지만 이규혁은 한국이 빙속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 발판을 놓은 인물이다.

국가별 메달 순위 <13일 오전 1시 기준>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독일	5	1	0
2	캐나다	4	4	2
3	노르웨이	4	3	5
4	네덜란드	4	2	4
5	스위스	3	0	1
⋮	-	-	-	-
11	대한민국	1	0	0

단거리 최강자를 가리는 세계스프린트선수권에서만 2007·2008·2010·2011년 4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2011년에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500m 정상에 올랐다. 월드컵 대회에서 수확한 금메달만 통산 14개다. 1997년에는 1000m(1분10초42), 2001년에는 1500m(1분45초20)에서 세계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세계 수준을 지닌 국내 유일의 선수로서 이규혁은 자신의 집에서 이상화 등 어린 선수들을 합숙시키고 훈련을 도와주는 등 후배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선수로서 마지막 레이스를 끝낸 이규혁은 “너무 오랜 시간 도전을 이어오면서 올림픽은 나에게 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한 핑계였던 것 같다”며 “메달이 없다는 말을 하며 계속 출전했지만 사실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올림픽에 나왔다. 선수로서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경기를 마치고 한참 동안 링크를 돌며 응원하는 관중과 한국 중계진에게 손을 흔들며 마지막 올림픽과 작별 인사를 했다. 이규혁은 “홀가분하면서도 여러 감정이 든다. 6번의 올림픽 중 이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 함께 출전한 모태범(25·대한항공)은 1분09초37로 12위에 그쳤다. 500m에서도 4위에 그친 그는 결국 노메달로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아쉬운 모태범 1000m도 12위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간판스타 모태범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1000m 경기를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마친 후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빌린 바지·망가진 부츠…‘헝그리 투혼’ 美 스키선수

소치 이모저모

케리 허먼 스폰서 못구해

○…미국의 국가대표 스키 선수 케리 허먼(32)이 후원 업체를 구하지 못해 빌린 바지에 부서진 부츠를 신고 올림픽에 나서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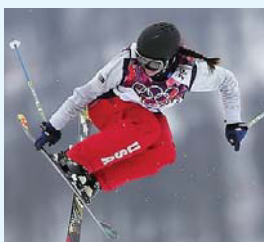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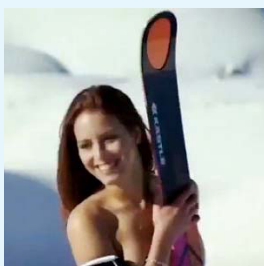
지난 11일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슬로프스타일에 출전, 10위를 차지한 허먼은 상·하의가 서로 다른 업체 제품을 입고 경기에 나왔다. 허먼은 “스폰서를 구하기엔 내가 너무 늙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대부분 기업은 나보다 어린 선수들을 후원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스포츠용품점과 퐁뒤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출전 비용을 조달한 허먼은 미국 대표팀 최연소 선수인 같은 종목의 매기 보이신(16)에게 바지를 빌려 입고 경기에 나왔다. 부츠는 빌리지 못해 부서진 것을 그대로 신고 슬로프에 섰다.

레바논 여자선수 누드사진 유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레바논의 여자 알파인스키 선수가 과거에 찍은 누드사진 유출로 자국에서 처벌당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dpa 통신에 따르면 재키 샤문(22)이 3년 전 오스트리아 스키달력에 들어갈 화보 촬영을 할 당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이 유출됐다.

달력에 쓰인 사진에는 샤문이 상반신을 벗은 상태에서 스키로 가슴을 가린 채 비키니 하의를 입은 사진이 들어갔으나 이번에 유출된 영상과 사진에서는 가슴과 엉덩이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드 사진 유출로 곤욕을 겪고 있는 레바논 스키 선수 재키 샤문(사진 위)과 빌린 바지에 부서진 부츠를 신고 올림픽에 나선 미국 스키 선수 케리 허먼.

파이잘 카라미 레바논 체육부 장관은 레바논 올림픽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조사해 샤문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연아 파워…피겨 티켓 이미 매진

○…김연아(24)의 두 번째 대관식을 기대하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최고 인기 종목으로 떠올랐다.

21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릴 이 경기 티켓은 이미 매진됐다. 티켓 가격은 최대 2만 루블(약 61만원)이며, 1만2000명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이 경기는 ‘여왕’ 김연아와 ‘샛별’ 율리아 리프니츠카야(러시아)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는 동시에 전설이 될 김연아의 마지막 메달 획득 장면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프리스케이팅보다 다소 경기 시간이 짧은 쇼트프로그램 경기(20일) 티켓도 1만8000루블(약 55만원)짜리 고가 티켓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팔렸다.

김연아가 나올 가능성이 큰 갈라쇼(메달리스트 공연)는 최고가가 2만3000루블(약 70만원)임에도 모든 표가 팔렸다. /유순호·탁진현기자

한국의 김지선(가운데)이 12일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스톤의 방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컬링 스웨덴에 패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세계 최강 스웨덴을 상대로 분전했지만 아쉽게 패했다.

한국은 12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큐브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예선 3차전에서 스웨덴에 4-7로 졌다.

전날 일본을 상대로 올림픽 데뷔전을 12-7 승리로 장식한 대표팀은 세계랭킹 4위 스위스와 1위 스웨덴 등 강팀과 연달아 만나 2연패를 당했다.

한국은 13일 자정 러시아와 맞붙는다. /유순호기자

‘스노보드 황제’ 화이트 4위

설상 종목의 세계적인 남자 스타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입상권에도 들지 못하는 부진을 겪었다.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의 최고 스타인 숀 화이트(28·미국·사진)는 12일 러시아 소치의 쿠토르 익스트림파크에서 열린 경기 결승 1차 시기에서 거푸 엉덩방아를 찧어 명성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4위에 머물렀다.

1차 시기에서 11위로 밀려 메달권 진입을 위한 2차 시기에서 안정적인 플레이 위주로 경기를 꾸려가면서 그는 공들여 준비한 고난도 신기술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화이트는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하프파이프 2연패를 달성하는 등 10년 넘게 이 종목을 지배했다. /유순호기자

김연아 "만족스러운 경기하고 오겠다"

올림픽 2연패 위해 소치 출국…"점프보다 완성도 집중"
"다른 선수들 성적에 신경안써…현재 컨디션 괜찮아요"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올림픽 2연패를 위해 '결전의 땅' 소치로 떠났다.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금빛 환희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연아는 12일 오전 대표팀 후배 박소연(17·신목고), 김해진(17·과천고)과 함께 인천공항을 떠나 소치로 향했다.

대표팀 단복을 입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연아는 공식 인터뷰를 통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며 "두 번째이자 마지막 올림픽인 만큼 만족스러운 경기를 하고 후배들이랑 같이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출국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김연아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을 앞두고는 하루 5시간씩 체력훈련과 프로그램 연습 등에 매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릉선수촌에서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 6회의 강훈련을 소화했다.

그는 "마지막 무대라는 점에서 점프도 점프지만 안무를 조금 더 다듬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며 "다른 때와 같이 부상 없이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현재 컨디션이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2014 소치올림픽에서 피겨계 샛별로 떠오른 라이벌 율리야 리프니츠카야(16)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김연아는 "러시아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러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린 데다 (율리야 리프니츠카야로선) 첫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다른 선수들의 성적에 대해 신경 쓰는 게 도움이 될 리도 없고 내가 준비한 만큼 발휘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하는 김연아(가운데), 김해진(왼쪽), 박소연. /연합뉴스

◆연아 소치 프로젝트 본격 가동

마지막 올림픽 출전인 만큼 김연아가 안정적인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4년 전처럼 '연아 전담팀'도 꾸려졌다. 어머니 박미희씨를 필두로 신혜숙·류종현 '더블 코치진'과 소속사에서 파견한 물리치료사가 함께한다.

또 이번에도 선수촌에는 입촌하지 않는다. 대신 경기가 치러질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 인근 아파트에 숙소를 따로 얻어 지내기로 했다.

김연아는 13일 도착해 본격적인 현지 적응에 들어간다. 여자 피겨스케이팅 싱글 경기가 펼쳐지는 메인 링크는 16일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김연아는 20일 자정 쇼트프로그램 '어릿광대를 보내주오'로 대관식을 시작해 21일 프리스케이팅 '아디오스 노니노'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17세 소녀 심석희 오늘 일낸다

쇼트트랙 500m 출격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빙속 여제' 이상화(25)의 바통을 심석희(17·세화여고)가 이어받는다.

심석희는 13일 오후 9시15분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리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전에서 '차세대 여왕'의 신고식을 치른다.

심석희는 이날 오후 7시 시작되는 준준결승에 이어 8시10분에 열리는 준결승 통과가 선행돼야 하지만 결승행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여자 500m 예선 8조 경기에서 2위로 준준결승전에 올랐다.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여자 500m에서 심석희는 기대 이상의 기량을 선보이며 또 하나의 금메달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여기에 500m 최강자 왕멍(29·중국)이 부상으로 대회에 불참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174cm라는 큰 키 때문에 순발력에서 뒤져, 초반 레이스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 전지훈련을 통해 물리적 한계마저도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남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최대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초반 스타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결국 심석희가 5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면 1000m, 1500m, 3000m 계주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sochi.ru 2014 소치 하이라이트 13일 한국 주요 경기(한국시간)

종목	세부 종목	경기 시각	한국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23시	이상화·김현영
쇼트트랙	여자 500m 준준결승	19시	심석희·박승희·김아랑
	남자 1000m 예선	19시 25분	신다운·이한빈
	남자 5000m 계주 준결승	20시 31분	신다운·이한빈·박세영·김윤재·이호석
컬링	여자 예선	24시(러시아전)	신미성·김지선·이슬비·김은지·엄민지
루지	팀 계주	14일 1시 14분	김동현·조정명·박진용·성은령
바이애슬론	남자 개인 20km	23시	이인복

이상화 "내친김에 1000m 메달까지"

세계기록에 불과 1초차…월드컵서도 꾸준히 메달권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에 이어 또 하나의 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상화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리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경기에 출전한다.

4년 전 밴쿠버올림픽에서 23위에 그쳤던 이상화는 이후 세계대회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9월 캘거리에서 열린 폴 클래식에서는 1000m 세계기록(1분12초68) 보유자인 크리스틴 네즈빗(캐나다)을 제쳐 화제가 됐다. 이상화는 당시 1분13초66의 한국 기록을 세웠다.

이상화는 2013~2014 국제빙상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000m 1차 대회에서 4위, 4차 대회에서 6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메달권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

비록 1000m가 주 종목은 아니지만 이틀 전 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기세를 몰아 메달권 진입을 노린다. 또한 세계 언론과 경쟁자들의 시선도 이상화에게 쏠려있다.

500m 은메달리스트 올가 팟쿨리나(러시아)는 "우사인 볼트 같았다"고 놀라움을 나타냈다.

한편 올림픽 2연패의 위업을 세운 이상화는 포상금만 2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65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가 6000만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3000만원을 포상할 계획이다. 각 기업의 후원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suno@

소치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 금메달리스트 이상화가 12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 클러스터 올림픽 파크 내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훈련을 마친 뒤 자전거를 타고 선수촌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현수 은퇴 후 러시아 코치"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사진 왼쪽)가 현역에서 은퇴한 후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세이 크라프초프 러시아 빙상연맹회장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포츠 전문매체인 R스포르트와의 인터뷰에서 "안현수가 러시아 대표팀 코치를 맡아 후진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프초프 회장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며 "빅토르 안은 아직 경쟁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선수로 뛸 것이다. 2015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도 선수로 참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12일

팀	1Q	2Q	3Q	4Q	합계
삼성	21	13	22	12	**68**
KT	18	16	21	20	**75**
모비스	18	14	27	31	**90**
KCC	17	22	19	27	**85**
KDB생명	19	16	14	14	**63**
삼성생명	13	20	18	13	**64**

프로배구 전적 12일

팀	세트	세트	팀
GS칼텍스	0	3	기업은행
우리카드	2	3	현대캐피탈